

11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91.35	↓ 코스닥	852.42
	(+23.36)		(-6.13)
↑ 금리 (미국 9년)	3.163	↓ 환율 (원·달러)	1378.80
	(+0.043)		(-5.90)

한은, 기준금리 동결  
금리 인하 시 집값 상승  
02



## 미래사업 투자나선 SK, TRS 발목에 건전성 확보 난항

(총수익스와프)

AI 관련분야에 5년 간 82조 등  
신동력 투자위해 재원마련 나서

SK은 재무구조 부실 해결 시급  
계열사 내 사업정리·합병 고려  
TRS 계약에 구조조정 어려워

SK그룹이 재무건전성 확보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 구조조정  
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사업 경쟁력 강  
화를 위해 계열사 구조조정을 계속하  
고 있다. 그러나 사업 구조조정에 총수  
익스와프(Total Return Swap·TRS)  
계약에 묶인 곳들이 많아 다소 험난한  
여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SK그룹의 계열사  
구조조정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  
하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표를 향  
하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경영전략  
회의를 열고 향후 5년간 총 103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80%에 달하는 82조  
원을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관  
련 사업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바 있다.

재원 마련을 위해 SK그룹은 현재 재  
무 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상태다. SK  
그룹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현재 지  
난 1분기 유동비율은 100.56%를 기록  
했다. 지난 2021년 109.38%, 2022년  
103.08%, 지난해 말 99.21%를 기록 후  
소폭 상승했으나 안정성 판단 기준치

인 100%에 간신히 안착한 상태다.

계속 된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  
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계열사 내 사업 정리 뿐 아  
니라 계열사간 합병 등을 고려 중이지  
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TRS 계약 잔  
액이 1조 2319억 원에 달한다. TRS는  
재무 구조의 복잡성으로 합병 과정에  
서 이를 조정, 정리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기본 자산의 시장 위험 관리  
를 위한 수단인 만큼 위험관리 전략 또  
한 새로 세워야 할 뿐 아니라, 합병 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리스크 프로파일  
변경 될 경우 TRS 계약의 유효성 마저  
문제될 수 있다.

SK그룹은 최근 사업 재편의 일환으  
로 SK온의 재무구조 부실 등을 해결하  
기 위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의  
합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알  
려졌는데, 현재 TRS 계약으로 묶인 상  
태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다. SK온  
은 설립 이후 10개 분기 연속 영업 적자  
상태로 현재 SK그룹 내 위기를 가져온  
주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SK온은  
이차전지 사업을 수행하며 SK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손꼽혔으나 전기차 수요  
감소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겹치며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 1분기 영업손  
실은 3315억원으로 전분기(186억원) 대  
비 적자 폭이 18배로 커졌다.

SK그룹은 주요 미래 먹거리로 낙점  
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사업을 중시  
으로 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도 진행  
중이다. 지난달 22일 미국 출장길에 오



삼성 '갤럭시 시리즈' 살펴보는 시민들

11일 서울 마포구 삼성스토어 홀대에 마련된 체험공간 '갤럭시 스튜디오'를 찾은 시민들이 전  
시된 갤럭시 Z 폴드6·플립6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3·9면> /손진영 기자 son@

른 최 회장은 앞서 오픈AI, 마이크로소  
프트, 아마존, 인텔 CEO 등을 잇따라  
만나며 IT 소프트웨어 파워 확보를 위  
해 동분서주한 데 이어 반도체 소재, 바  
이오 등 미국 내 사업 현장 직접 점검에  
나섰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는 미  
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에서 그룹  
주요 관계사들과 함께 '2024 SK 글로  
벌 포럼'을 열고 그룹의 성장 전략을 공  
유하고 최신 기술과 글로벌 시장 동향  
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M-커버스토리

## “고액자산가 모십니다”

### ‘WM’ 힘주는 증권사

‘초고액자산(슈퍼리치)’ 시장을  
공략하려는 증권사 간의 경쟁이 치  
열해지고 있다. 증권사 주요 수익원  
중 하나인 기업투자금융(IB) 부문  
의 시장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증  
권사들은 자산관리(WM) 부문을 실  
적 돌파구로 삼기 위해 동분서주하  
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4면>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부  
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침체 여파 등으로 IB부문의 손실이  
커져 증권사들이 눈을 돌린 곳은  
WM 부문이다. 풍부한 현금을 보유  
한 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함으로써  
수익성 회복에 드라이브를 건 것으  
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WM 부문  
에서 우위를 점하는 증권사가 관련  
수익률 확보는 물론, 증권사로서의  
신뢰도나 이미지도 제고할 수 있다  
고 내다보고 있다.

증권사들은 초고액자산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자산별·연령대별 부  
서를 신설하거나 지점을 합쳐 금융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WM 전  
략에 많은 공을 들이는 중이다. 한국  
투자증권은 최근 3년동안 30억원 이  
상 자산가고객을 48%,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71% 각각 늘리며 슈퍼리

치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업계에서는 초부유층 가족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패  
밀리오피스’ 조직을 강화하며 각사별  
차별화된 서비스로 승부하고 있다.  
NH투자증권의 경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 고객이 최근 100개를 돌파하  
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  
부장은 업계의 WM 부문 강화 기조  
에 대해 “초고액자산가들의 금융니  
즈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  
들 자체가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한  
고객군이다보니 별도의 조직이나  
기능을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2022년부터 대형사  
부터 중·소형사까지 차이는 있지만  
부동산 PF 리스크로 투자은행(IB)  
부문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회사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134조2000억원으로 증  
권사는 8조7000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은행(46조2000억원)이나 여신전  
문금융회사(25조4000억원)와 비교하  
면 대출잔액 규모는 작지만, 증권사  
의 지난 3월 말 부동산 PF 연체율은  
17.57%로 작년 12월 말(13.73%)보  
다 3.84%포인트 높아졌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韓日 정상 “러·북 군사·경제협력 큰 우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  
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  
간) 미국 워싱턴DC 윌러드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나토 정상회의’ 연쇄 양자회담 진행  
尹 “나토 회원국들과 긴밀히 공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  
C.에서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현지시간)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역  
내 안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또 나토  
의 동맹국 정상들과도 연쇄 양자회담  
을 통해 신규 원전 협력과 핵심 광물 공  
급망 협력에 대해 협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윌러  
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시다 후미  
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러시아와  
북한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  
기로 한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한  
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반

되는 이 문제에 대해 양국이 긴밀히 공  
조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최근 러·북의  
밀착은 한·미·일의 캠프데이비드 협력  
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보여주  
고 있다”며 “한·일 양국이 나토 회원국  
들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결코 북대서  
양의 안보와 동북아의 안보가 서로 분  
리될 수 없다는 것을 우방국들과 단합  
된 대응으로 확인시켜 나갈 희망한  
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  
를 고려할 때 우리 양 정상이 견고한 신  
뢰 관계와 전략적인 문제 인식을 공유  
하며 이렇게 긴밀히 논의·공조하는 것  
은 뜻깊다”고 말했다. <2면에 계속>

/서예진 기자 syj@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윤 대통령, 나토 정상 리셉션장에서 젤  
렌스키 조우 /사진 뉴스스
- ▲ 민주당, 노란봉투법·전세사기법·감사원  
법 등 6개 당론 채택

- ▲ 깊어지는 원·한 갈등… 총선백서 발간  
시기도 쟁점되나
- ▲尹 “100억 주지” 비판했던 민생지원특  
별법… 이상민 “지방재정 큰 부담”



- ▲ 여 차기 당대표… 한동훈 27% 나경원  
10% 원희룡 7% 윤상현 2% /사진 뉴스스
- ▲ 조국 ‘다 공개 맨 위험’ 한동훈에 “불법  
내용 자백한 것”

# “금리 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물가보다 ‘금융안정’ 먼저”

## 한은, 기준금리 12차례 동결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공공요금·환율·국제유가 상승 등  
위험요인 많아 금리인하 불확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연3.5%)를 이번에도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3.5%)에서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뒤 12차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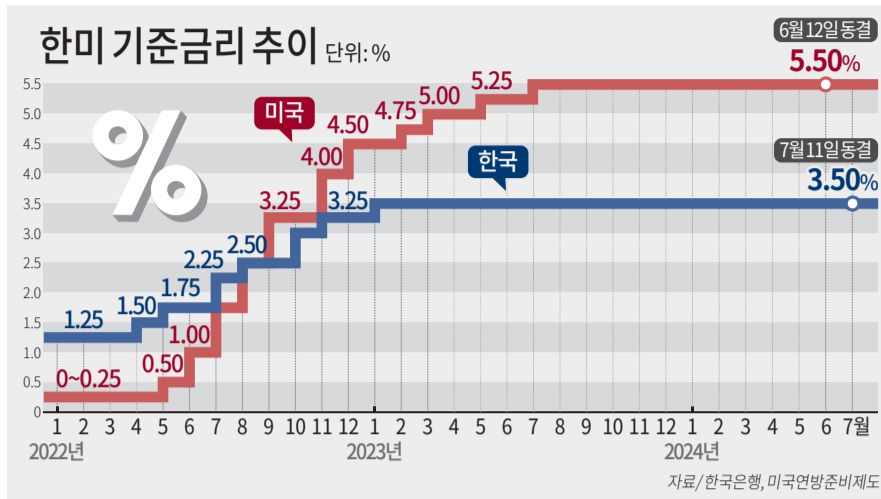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금은 금리인하를 위해 차선을 바꾸고, 방향 전환을 언제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언제 방향을 전환할 지 여부는 위험요인이 많아 불확실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물가가 2%대로 둔화해 금리 인하시기를 논의해야 하지만 여전히 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고, 금리인하시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간을 두고 금리인하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 ◆ 금리동결, 물가보다 ‘금융안정’

이날 이 총재는 향후 물가안정을 해칠 수 있는 요인으로 ▲공공요금인상 ▲환율 ▲국제유가 상승 등을 꼽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하반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예정된 상태다. 앞서 정부는 높은 체감물가를 고려해 공공요금을 1년간 동결했다. 오는 8월 가스요금이 오르고 10월 이후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 노태문 사장 “연말까지 2억대 갤럭시 제품에 AI 적용할 것”

S21·A시리즈까지 ‘서클 투 서치’ 적용 온디바이스 AI 고도화로 대상 확대 XR생태계 구성 뒤 제품 출시 결정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사장·사진)이 올해까지 2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전자가 추진해 온 확장현실(XR)사업도 함께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 ◆올해 2억대 제품에 AI 적용

노 사장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갤럭시 언팩 2024’ 이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초 1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AI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연말까지 2억대의 갤럭시 제품에 갤럭시 AI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올해 초 목표로 얘기했던 1억대에서 두 배 늘어난 수치다.

이를 위해 신제품인 갤럭시 Z 폴드6·플립6 등은 물론 갤럭시 S21 시리즈와 갤럭시 A 시리즈에까지 ‘서클 투 서치’ 기능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노 사장은 “그동안 삼성전자는 온디바이스 AI와 클라우드 AI를 적재적소에 사용하고 있는데, 올해 초는 갤럭시 S23·24까지 (AI 적용을) 할 수 있지 않을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행사 직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까 해서 1억대를 언급했다”며 “하지만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고도화하고 최적화해서 갤럭시 AI 지원 모델을 S22·23·24 등 S시리즈, Z4·5 등 Z시리즈로 대상을 늘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갤럭시 탭 S시리즈 등 태블릿 제품에도 적용을 늘리는 등 갤럭시 AI가 지원되는 단말 규모를 꾸준히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XR 기기 아닌 플랫폼 선출시 ‘깜짝 발표’… 폴더블 신제품 10% 판매목표

특히 노 사장은 올해까지 XR 기기 아닌 플랫폼을 출시 하겠다고 깜짝 발

표를 했다. 기기 개발 보다는 생태계를 먼저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는 “지난해 삼성전자와 구글과 퀄컴이 XR 제품 출시를 위한 협력을 발표 후 꾸준히 함께 개발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XR 디바이스를 먼저 먼저 내놓고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닌, XR 생태계를 구성한 뒤 제품을 출시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며 “올해 내로 에코시스템 관련 부분들을 준비해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폴더블 신제품 판매 목표로 전작 대비 10% 이상을 제시했다. 노

사장은 “S24 시리즈도 전작 대비 10% 이상 판매율(성장)을 목표로 잡은 만큼 폴더블도 전작 대비 판매 성장률 10% 이상의 성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대중화를 위해 갤럭시 AI 유료화 계획도 당분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 사장은 “통상 AI 서비스는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독료를 받고 있지만, AI 대중화를 위해 적어도 2025년 말까지는 모든 AI 기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이후부터는 소비자 요구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획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는 유럽연합의 AI 규제 대상에 향후 삼성전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유럽연합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AI 규제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유엔연합은 최근 삼성전자와 구글의 협업에 대해 반독점 조사 필요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사장은 이에 대해 “EU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건 우리도 잘 알고 있다”며 “삼성전자 모바일의 모든 비즈니스는 각 지역과 국가의 법, 규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규격이 정해지면 당연히 따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EU가 개인

정보 보호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대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혈당측정 기능 탑재, 당분간 어려워

삼성전자는 이날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6세대 폴더블폰인 Z폴드6와 Z플립6을 공개했다. 이와 함께 AI를 탑재한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워치7·울트라 ▲버즈3 시리즈 ▲갤럭시 링 등 총 7개 신제품을 선보였다.

특히 많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기기의 ‘혈당 측정’ 기능 탑재 여부에 관심을 가져왔다. 다만, 이번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기에 혈당 측정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노 사장은 “혈당 측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선행 개발을 지속하고 있지만, 혈당은 정확성 등에 있어서 의료 쪽에 가까운 데이터로서 굉장히 정확한 수치를 만들고 각종 규제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갤럭시 링 등에 탑재된 광학식 센서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웨어러블 제품에 혈당 측정 기능을 추가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갤럭시 링, ‘수면분석’부터 ‘카메라·알람제어’ 기능까지

갤럭시 포트폴리오 중 최소형 폼팩터 행동 변화 유도, 컨디션 관리 도와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최초로 반지형태로 나온 ‘갤럭시 링’을 공개하면서 소비자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그간 기대를 모았던 혈당 측정 기능은 제외됐지만 대신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끌어올렸다. 인공지능(AI) 헬스케어와 가벼운 무게로 인해 하루종일 손쉽게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알람제어와 사진촬영 기능 등을 추가했다.

삼성전자는 10일(현지시간) ‘갤럭시 언팩 2024(Galaxy Unpacked 2024)’ 행사를 통해 갤럭시 Z플립과 폴드6 등

갤럭시 링	
규격	7.0×2.6mm
무게	2.3~3.0g
배터리	링 18(사이즈 5)~23.5mAh(사이즈 13) 케이스 361mAh
메모리	8MB
사이즈	9개(사이즈 5~13)
색상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출고가	49만9400원

자료: 삼성전자 /뉴시스그래픽

을 공개하는 동시에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도 선보였다.

이날 삼성전자가 공개한 ‘갤럭시 링’

은 최첨단 센서 기술이 집약된 기기로 갤럭시 포트폴리오 중 가장 작은 초소형 폼팩터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손쉽게 24시간 밀착 관리하도록 지원하며 가벼운 디자인으로 오랜 시간 착용이 가능하다.

‘갤럭시 링’은 오목한 외관 디자인과 티타늄 5등급 마감 처리를 통해 스크래치에 강하다. 또 10ATM 방수 기능을 지원해 어디서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성능은 별도 충전 없이 최대 7일 동안 사용가능하며 LED 조명이 탑재된 충전 케이스는 간편한 충전을 지원한다.

갤럭시 링은수면 분석을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수면을 이해하고 수면 습관을

개선하도록 돕는다. 사용자는 매일 아침 기상 후, 전날 밤의 수면 점수와 다양한 건강 지표를 확인할 수 있다. 수면 분석은 ▲수면 중 움직임 ▲잠들기까지 걸린 시간 등 수면의 질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 ◆AI 기능 추가 ‘사용자 운동 유도’

링에는 갤럭시 AI를 활용한 새로운 헬스 기능이 추가됐다. 사용자의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인사이트와 동기부여 메시지를 제공해, 사용자의 행동 변화를 유도한다. 또 심박 변이도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에너지 점수’를 통해 사용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점수를 제공함으로써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갤럭시 링은 광범위한 일상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원한다. ‘심박수 알람’ 기능과 ‘자동 운동 감지’ 기능을 통해 심박수 측정은 물론 사용자의 운동 진행 상황을 알려준다. 또 ‘활동 안 한 시간 알람’ 기능은 사용자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을 때 목표 달성을 위한 동기를 부여한다.

주목만할 점은 갤럭시 링에 건강관리 기능 외에도 특별한 기능이 탑재됐다는 점이다. 링에는 알람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카 탑재됐다. 갤럭시 링을 착용한 후 ‘손가락 맞대기’ 제스처를 실행하면 갤럭시 링과 연결된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와 시계 알람을 손쉽게 제어할 수 있다. 또 ‘삼성 파인드’ 앱의 ‘내 링 찾기’ 기능을 활용하면 갤럭시 링의 위치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 제공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 링·워치·버즈 소개 때마다 탄성… Z6 시리즈 에디션에 인파

## 현장르포

장내 마련된 1000석 가득 차 Z6폴드 수확연산 기능에 갈채 Z플립 무지개·황금색 ‘이목’

“모나리자 관람객 보다 많잖아? 여기 갤럭시 언팩 대기줄 맞나요?”

10일(현지시간) 오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카루젤 홀. 갤럭시 언팩 행사를 위해 들어간 박물관의 광경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모나리자 작품을 보러 온 관광객인가 싶을 정도로 수 많은 인파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긴 줄을 기다린 끝에 입구에 도착했

지만, 참석자 QR코드와 가방검사를 받고 난 후에야 행사장 안에 들어설 수 있었다. 행사장 안은 각국에서 온 취재진과 인플루언서, 관계자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장내 마련된 1000석이 꽉 찬 것은 물론 몇 백명에 달하는 인파들이 뒤에 서있었다.

10분 가량 지났을까. 조명이 어두워지고 파리의 전경을 담은 영상과 함께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이 등장했다. 동시에 엄청난 환호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삼성전자는 2019년 처음 폴더블 제품을 출시한 후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폴더블 시장을 선도해 왔으며, 새롭게 출시되는 갤럭시 Z 폴드6와 갤럭시 Z 플립6는 궁극의 성능과 완성도를 자랑한다”며, “한층 더 발전한 갤럭시 AI와 최적화된 폴더블 폼팩터는 사용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갤럭시 Z6폴더블이 공개되고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버즈3 시리즈가 차례로 소개될 때마다 탄성이 터져나왔다. 특히 Z6폴드폰의 수확연산 기능이 소개될 때는 박수와 함께 ‘와우’라는 감탄사들이 쏟아졌다.

언팩 행사가 끝난 자 뒷 쪽에 마련된

체험관으로 인파들이 이동했다.

체험관 내부에는 각 국에서 참가한 인플루언서들이 연신 사진을 찍고 있었다. 특히 갤럭시 링과 갤럭시 플립 Z6을 링 에디션에 가장 많은 인파들이 몰려있었다.

브라질에서 왔다는 한 인플루언서는 “삼성이 최초로 공개한 초소형 웨어러블 기기인 갤럭시 링에 가장 관심이 많다”며 “평소에 착용하고 다닐 만큼 가벼운지, 또 워치 만큼 다양한 건강관리 기능이 탑재돼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특히 갤럭시 Z플립 월드컵 에디션은 뒷쪽 벽 중앙에 가장 크게 전시돼 있었다. 특히 화려한 무지개색과 황금색이 이목을 사로 잡으며 가장 많은 카메라 셔터 세례를 받았다.

한편, 삼성전자는 7월 24일부터 ‘갤럭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갤럭시 체험관에서 관람객들이 ‘갤럭시 링’을 체험하고 있다.

시 Z 폴드6’, ‘갤럭시 Z 플립6’, ‘갤럭시 버즈3 시리즈’를 국내를 포함해 전세계에 순차 출시한다. /프랑스(파리)=구남영 기자

# “절세·투자부터 상속까지… 다양한 니즈 충족 서비스 확대”

## 증권사, 자산관리 서비스 강화

올해 들어 증권사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문에서 발생한 수익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자산관리(WM) 부문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단순한 금융 투자 상담을 넘어서 세무, 부동산 컨설팅, 절세, 승계까지 다양한 분야를 합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부자가 늘었다”… 증권사들이 주목하는 ‘뉴리치’

증권사들의 WM 강화 기조에 불을 지핀 또 다른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뉴리치(젊은 신흥부자)’가 존재한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금융자산이 10억원 이상인 부자는 45만6000명으로, 이는 4년 만에 41.2%나 급증한 규모다. 이들이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2747조원으로 한국 전체 가계 총 금융자산의 59%를 차지한다. 이전의 WM 시장이 상위 1% 소수의 자산가가 주 고객이었다면, 최근 흐름은 개인 고액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한 WM 영업도 활발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초고액자산가가 증가한 이유를 묻자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활기를 되찾았던 증권·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거둔 젊은 투자자가 많아졌고, 스타트업을 설립한 뒤 성공적으로 엑시트한 기업가와 투자자들도 보인다”고도 말했다.

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장은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30억원 이상 자산가는 3년 동안 48%, 10억원 이상 자산가는 71%가 증가했다”며 “이들은 금융에 대한 니즈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관리가 필요한 고객군이다 보니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뉴리치 고객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감내하고 고수익을 지향하는 성향이 짙어 일반 금융상품보다는 희소



Chat GPT가 생성한 ‘슈퍼리치’가 증가해 증권사들의 WM부문 강화 이미지.

성 있고 기대수익이 높은 투자대상을 요구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도 덧붙였다.

◆ 증권사 점포 ↓, 서비스 품질·상품 퀄리티는 ↑

증권사들은 자사 수익률 제고와 고액자산가들과의 꾸준한 거래를 위해 WM 부문 강화에 사활을 걸고 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증권사 국내 지점의 형태 변화다. 증권사 국내 지점의 개수는 줄었지만 규모가 달라졌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증권사들의 국내 지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797개다. 지난 2020년 2분기 기준 994개였던 지점 수는 꾸준히 줄어 2022년 899개로 800개 대로 진입하더니 올해는 800개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대신 초고액자산가가 모인 지역을 중심으로 점포를 옮기고 인력을 보강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WM 부문을 강화했다. 유안타증권은 기존 을지로 GWM 센터에서 GWM반포센터로 터를 옮겨 초고액자산가 특화 상품 전략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코로나19 이후 뉴리치 급등 주목 지난해 말 10억 이상 부자 45.6만명 이들 보유 총 금융자산 2747조 달해 리스크 감내하고 고수익 지향 강해

증권사, ‘WM 부문’ 강화에 집중 점포 줄이고 서비스 품질 등 높여 패밀리오피스 위한 차별화 서비스 세무·부동산 컨설팅 등 자산관리

대신 은행을 계열사로 둔 증권사들은 초고액자산가들을 유치하고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복합점포를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하나증권은 올해 4월 돈암동 지점을 하나은행 돈암금융센터지점과 통합해 ‘성북금융센터’ 복

합점포를 개점했다. 고객은 한 곳에서 증권업무와 은행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다는 이점을 누리게 된다.

◆ ‘패밀리오피스’ 전성시대

또한 증권사들은 ‘패밀리오피스’라는 이름으로 특정 초부유층 가족이나 가문의 자산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패밀리오피스’는 가문의 자산을 운용하는 법인체나 조직을 뜻하는 말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올해부터 슈퍼리치를 전담하는 글로벌웰스매니지먼트(GWM)의 하위 부서로 ‘패밀리오피스부’를 신설했다. 부서 신설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가문 단위 가입자들은 부가 증가하고 자산 또는 가업의 승계 등을 관리하는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증권사는 패밀리오피스 유치·관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융기관의 플래그십 마케팅(Flagship Marketing) 효과도 볼 수 있다”는 분석

을 내놨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는 전국 어느 지점에서나 동일한 고액자산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 맞춤 서비스의 품질에 전략적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2015년 VIP 브랜드 ‘오블리제클럽’을 만들어 초고액자산가를 관리하던 미래에셋증권은 현재는 ‘세이지클럽’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 세무, 법률, 가업 승계, 투자 관련 상담을 제공 중이며, 문화생활(아트)과 금융을 접목한 세미나도 점포에서 진행하고 있다.

NH투자증권 역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에 가입한 가문이 11월 기준 100개를 돌파하며 무서운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배광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본부 대표는 “국내 초고액 자산가 그룹의 변화에 주목해 전통적인 증권회사의 증권 투자 자문 및 IB 연계 자문 기능뿐만 아니라 패밀리오피스의 가문 관점의 운영, 관리, 발전 등을 위한 비재무적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위탁자산 300조 돌파… “패밀리오피스 고객들, 특별함 원해”

인터뷰

정연규

삼성증권 SNI/법인전략 상무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로 100가문 유치 뉴리치·전통부유층 맞춤 자산관리 고객 니즈 맞춤형 강의·자녀 교육도

증권업계 내 ‘초고액자산가 모시기’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는 곳은 삼성증권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삼성증권의 위탁자산 규모는 314조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업계 1위이다. 삼성증권의 자산 1억원 이상의 초고액자산고객은 지난 2021년 4분기 23만8000명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26만명으로 9% 증가했다.

삼성증권에서 SNI·법인전략담당을 맡고 있는 정연규 상무는 “10억원 이상



정연규 상무는 지난 2009년 삼성투자신탁증권에 입사해 이후 삼성증권 SNI강남파이낸스센터 팀장과 SNI삼성타운금융센터 지점장을 거치면서 초고액 자산가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 지난해 SNI·법인전략 담당으로 승진한 ‘초고액 자산관리’ 전문가다. /삼성증권

금융자산을 보유한 고객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증권사들이 앞다퉈 초고액자

산가를 위한 전담 조직과 서비스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특히 전통부유층을 비롯해 스타트업 기업 창업자 또는 종사하고 있는 신흥 부유층, 기업의 지분을 매각한 초고액자산가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삼성증권은 2010년부터 업계 첫 초부유층 전담 브랜드 ‘SNI(Success & Investment)’를 만들고 전통·신흥 부유층과 패밀리오피스 고객까지 모두 아우르는 슈퍼리치 자산관리 조직을 갖췄다. 2022년에는 뉴리치 전담 센터인 ‘The SNI Center’를, 올해 초에는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추가 개설해서 초고액자산가들을 공략하고 있다.

정 상무는 “삼성증권은 초고액자산가들의 니즈에 맞춘 SNI전용상품 설정 등 본사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 전자 협업 맞춤형 자산관리를 제공하면서 자산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기 시작

했다”며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100가문, 위탁 자산 300조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삼성증권이 2020년 6월 업계 최초로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론칭한 지 4년 만의 성과다. 삼성증권의 SNI 자산관리 서비스를 받는 기준은 삼성증권에 넣은 위탁자산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이며,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는 투자가능자산 1000억원 이상의 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 상무는 요즘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받는 고객층은 특별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패밀리오피스 고객들은 투자 정보 획득에 대한 니즈가 매우 높다”며 “삼성증권은 패밀리오피스 고객을 위한 맞춤형 강의도 진행하는데 고객 본인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횟수가 가문 당 연평균 10여 차례에 달한다”고 말했다.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에서는 초고액자산가의 자녀들이 금융 분야를 전공하지 않아도 향후 가업승계나 가문의 자산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객의 니즈에 맞춰 세무·부동산·경제·투자 학습 커리큘럼을 구성해 ‘1:1 맞춤형 자녀교육’을 진행하는 식이다.

이 밖에도 삼성증권은 신흥부유층 전담 센터로 ‘The SNI Center’에서 ‘뉴리치 고객’을 상대로 호실적을 거두고 있다. 정 상무는 “해당 센터는 스타트업, VC, CVC들을 위한 전문 콘텐츠와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의 IPO, 자금조달, 투자유치, 인재채용, 전략적 제휴, 정보교류 등 한국의 많은 비상장 주식(Private Market) 달들이 삼성증권 ‘The SNI Center’를 통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 IBK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BOX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관련 자세한 문의로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적절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IBK  
BOX 대출통로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 與 ‘野, ‘답정너’식 정쟁’ vs 野 “임성근 구하기 경찰 일조”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 與野, ‘임성근 불송치’ 공방

이성권 “사실왜곡·법리 오해 있어”  
용혜인 “경북경찰청, 임 변호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세 번째), 윤희근 경찰청장(왼쪽 첫 번째)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스

고(故) 해병대 채 상병의 사망 1주기가 오는 19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경찰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 이 자리엔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미리 경찰에 수사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려놓고 정쟁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채 상병 사망 1주기가 가까워지면서 경북 경찰청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 논란과 대립을 해왔던 정쟁을 종식하고 민생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본연의 임무로 돌아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 때문에 결과가 왜곡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답정너’ 식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사실왜곡과 법리 오해도 있는 것 같다”며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은 경북경찰청에서 이야기한 것이어서 사망 원인과 그와 관련 혐의 적시가

필요한 인원 발굴에 한정에 있는 것이고, 외압과 관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생산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윤희근 청장에게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변호하라고 지시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윤 청장이 “없다”고 하자 용 의원은 “경북경찰청이 1년 가까이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를 보면 ‘임성근 변호청’

이 내놨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결과를 내놨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이 이에 대해 입장을 묻자 윤 청장은 “저는 이 수사 결과에 대해 수사팀의 판단을 존중하고 다만 국민들이 기대하신 것과 다르다고 해서 비판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원론적인 대답을 했다.

용혜인 의원은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해병대 7여단장은 송치하고 임 전 사단장은 불송치한 것을 둔 것을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경북청 보도자료를 보면

7여단장에 대해서 포11대대장의 수중 수색 오인 지시가 직접 원인이지만 세심하게 관리했어야 한다는 이유로 기소의 견을 냈다”며 “그러면서 (7여단장에 대해) ‘내부 논의과정에서 관리 감독 소홀이 사망의 인과관계로 보기에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여러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원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설명을 달았다. (경북경찰청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굳이 반대로 적용했다.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위치인 것을 뺀히 인정하면서도, 7월19일까지 했던 모든 지휘행사가 채 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이어 “한 수사결과, 한 보도자료 안에서도 이중잣대를 거리낌 없이 들이대면서 임성근 구하기에 경북청이 일조했다”고도 주장했다.

용 의원이 “추후 특검을 통해서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묻자 윤 청장은 “제가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했다. 용 의원은 “경찰의 수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임성근 변호를 작심했다고 해도 논리를 형편없이 조각하면서 불기소를 결정할지 생각도 못했다”고 했다.

/빅테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민주당, ‘구하라법·노란봉투법’ 등 7개 법안 상정

### 21대 국회 폐기·거부권 행사 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 당 내부적인 이견 있어... 논의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구하라법·노란봉투법을 포함해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내부적인 이견으로 당 초 계획했던 8개 법안 중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제외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감사원법 개정안 ▲민법 개정안(일명 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구하라법·노란봉투법·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이다. 이 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구하라법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부모에 대한 상속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상속권 상

실 선고 제도를 신설해 피상속자가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선 ‘제2조제4호라목’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노동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이 당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당 내부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 과정에서) 방법론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짐작한다”고 답했다.

/윤도현 수습기자 yunbgb0611@

초연경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종합 항만서비스 리더

20th BPA 20주년 부산항만공사 창립 20주년

세계 2위 원적항만

1,241만 TEU

세계 4위 항만 연결성

주 287개 항로

국내 1위 항만

2,315만 TEU, 4.3억 톤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항만

# 함께한 20년, 도약의 100년으로!

바다의 가능성을 우리 모두의 가치로 만들어온 부산항만공사 20년, 새로이 도약할 100년을 위해 부산항만공사는 세계로 힘차게 뻗어갑니다.

**BPA** 부산항만공사  
BUSAN PORT AUTHORITY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http://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비교공시 효과?... 은행 예대금리차 1년새 0.5%p 줄었다

국내 은행 예대금리차 1.62%p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변동성 ↑

주담대 증가에 금융당국 규제 나서  
예대금리차 하락세, 당분간 주춤

국내은행들의 예대금리차(여·수신상품 간의 금리 차이)가 1년 만에 0.5%포인트(p)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5대 지방은행(부산·대구·경남·광주·전북)의 예대금리차는 지난 5월 말 기준 연 1.62%p(신규 취급액 기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 기록한 2.14%p보다 0.52%p 내린 수준이다.

예대금리차는 수신(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는 영업 행위) 금리와 여신(은행이 고객에게 돈을 빌려주는 영업 행위) 금리 간의 차이를 수치화한 것이다. 통상 예대금리차가 작을수록 소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 이미지.

자에게 유리한 금융 환경이 조성된다.

정부는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소비자가 국내 은행의 기간별 예대금리차를 동시에 조회할 수 있도록 했고, 은행권 예대금리차는 지난해부터 줄었다.

지난 5월 기준 10개 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전년 동월 대비 0.11~0.96%p 줄

어 10개 은행 모두 전년 대비 하락을 기록했다. 변동성에서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예대금리차에서 시중은행은 서로 비슷한 수준의 변동성을 보이며 월평균 0.14%p(신한 0.14%p, 국민 0.13%p, 하나 0.15%p, 우리 0.14%p, NH농협 0.

16%p) 변동했다.

같은 기간 지방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월평균 0.25%p(대구 0.23%p, 부산 0.11%p, 광주 0.35%p, 전북 0.39%p, 경남 0.19%p) 변동했다. 변동성이 컸던 전북은행은 시중은행의 3배에 달하는 변동을 보였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별 특성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른 만큼, 은행마다 예대금리차 변동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면서 “중·저신용자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취급이 잦은 일부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은 해당 상품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예대금리차가 크게 움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예대금리차 축소세는 당분간 주춤할 전망이다.

오는 9월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DS 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을 앞두고 주담대 수요로 대출이 빠르게 늘자, 부채 증가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금리를 예외주시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6조원 늘어난 111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신용·기타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3000억원 줄었지만, 주담대 잔액이 6조 3000억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잔액을 끌어올렸다.

지난 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성급한 금리인하 기대와 국지적 주담대 가격 반등에 편승한 무리한 대출 확대는 안정화되던 가계부채 문제를 다시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일에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이 “최근의 일부 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무리하게 대출을 확대하지 말아달라”라며 “연초 각 은행이 설정한 경영목표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0.1~0.2%p 인상했다. 다른 은행들도 금리 인상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 KB, 요양사업 주춤... 후발주자 '신한' 맹추격

KB라이프, 요양연계 부가서비스  
입소 우선권 제외상품 개정 출시

신한라이프, 실버타운·요양원 등  
요양 관련 신사업 추진 가속화

요양사업 선두 자리를 놓고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하다. 선두주자인 KB라이프생명이 요양시설 입소우선권 상품 출시가 주춤하면서 후발 주자인 신한라이프의 매서운 추격을 받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B라이프생명은 '노인복지주택 입소 우선권'과 연계한 종신보험 상품 출시를 철회했다. 대신 입소 우선권을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 6월 업계 최초로 요양시설 입소 우선권을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입소 우선권은 상품 가입 후 3년이 경과하거나 장기요양등급 4등급 이상 판정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빠른 입소를 지원받

을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다만 해당 부가서비스에 대한 법령해석 검토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입소권은 법이 정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하는 행위, 유인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KB라이프생명은 해당 상품에서 입소 우선권 서비스만 제외한 상품으로 개정 출시했다. 해당 상품 출시 전 배타적 사용권까지 신청했으나 결국 상품 출시 계획 변경에 따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철회했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요양연계 상품 부가서비스에 대한 외부 법률자문을 마치고 출시를 계획했다”며 “앞으로 소관부처와 면밀한 사전협의를 통해 고객에게 선택받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발주자인 신한라이프는 올해 1월 신한라이프케어를 출범해 본격 요양사업 진출을 알렸다. 지난 4일에는 차별화

된 시니어 주거 공간 구축을 위해 KAI ST와 뇌인지과학과와 신경건축학을 적용한 연구계약 협약을 진행했다.

신경건축학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 시니어 주거 시설에 도입되면서 최근 국내 최고급 주거 단지에도 적용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신한라이프케어는 정재승 KAIST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 및 요양시설 등 시니어 케어 서비스의 질을 향상한다. 신체적·정신적 노화 회복과 행복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니어 공간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석문 신한라이프케어 대표는 “KAIST와의 연구를 통해 개발하는 공간 정체성(Place Identity)은 당사가 만드는 시니어 공간의 디자인 철학과 원칙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한라이프가 올해 하반기를 시작으로 줄줄이 주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실버타운 건립을 추진하면서 보험

업계 요양사업을 둘러싼 KB라이프생명 경쟁에 불이 붙을 전망이다.

신한라이프는 올 하반기 경기도 내 노인 주간보호서비스센터(데이케어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기 하남 미사 지역에 요양원 1호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 미사 1호점은 60~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형 요양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다. 또한 2027년 개소를 목표로 서울 은평구 실버타운 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데이케어센터는 여가와 재할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임시 상주 가능한 시설”이라며 “요양원은 간병이 필요한 노인 대상으로 입소 생활 요양시설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버타운은 공동체의 삶이나 생활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시니어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조감도. /삼성물산

## 삼성물산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 2549세대 10월 분양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오는 10월 인천 시 연수구에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을 분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지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에 위치해 있으며, 최고 40층 높이 아파트 19개동, 2549세대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블록별 세대수는 1블록 706세대(전용면적 59~84㎡), 2블록 819세대(전용면적 59~95㎡), 3블록 1024세대(전용면적 59~101㎡) 등이다. 단지명은 중심을 뜻하는 '센트럴(Central)'과 랜드마크를 의미하는 '폴(Pole·기둥)'을 더했다.

'래미안 송도역 센트리폴'은 인천발 KTX와 월곶관교선 신설 등 교통 호재로 미래가치가 기대되는 송도역세권구역 도시개발사업지 내 첫 번째 공급 단지이다. 특히 삼성물산이 시행부터 시공까지 맡아서 하는 자체 개발 사업이다. 외관부터 세대 내부·스마트 시스템·조경에 이르기까지 래미안만의 차별화된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현재 수인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송도역에는 2025년 인천에서 부산, 인천에서 목포를 잇는 인천발 KTX가 개통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판교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는 월곶관교선도 2027년 개통이 예정되어 있다.

/안성미 기자 smahn1@

## 빈대인 BNK금융 회장 “조직문화에 ‘바름’의 철학 내제돼야”

하반기 그룹 정기인사 단행  
사고예방·준법윤리 의식 주름

BNK금융그룹은 지난 10일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이 상반기 실적과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반영한 그룹 하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하고, 그룹 전 임직원에게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주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빈 회장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상반기 의미 있는 실적달성과 시장에서의 그룹 주가 재평가는 임직원의 노고 덕분”이라며 “금융사고는 그 내

용과 규모를 떠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빈 회장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목표로 ▲금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과 그룹 내부통제 전반의 전면 재점검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토대로 한 바른경영 강조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구성원간 합리적인 의사결정 프로세스 구축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를 할 것”이라며 “업무를 비롯한 조직 문화 전반에 ‘바름’의 철학이 내제 되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불거지는 내부적인 갈등은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우려와 불신의 빌미를 줄 수 있다”며 “직원 상호간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제가 중요하고, 이를 토대로 ‘바른경영’의 초석을 다지자”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신뢰는 고객과의 관계뿐 아니라 조직의 업무와 구성원 사이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라며 “구성원간의 원만한 신뢰관계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BNK금융

체계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안승진 기자



# 피부 축적된 최종당화산물 측정으로 일상 속 노화 방지

##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4

### 갤럭시 워치7 시리즈

고도화된 바이오액티브 센서로 사용자 건강 상태 종합적 파악 수면 무호흡 기능도 최초 탑재 심전도·혈압 모니터링 기능도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갤럭시 워치 시리즈를 공개하고 헬스케어 시장 장악에 나섰다. 웨어러블 제품 갤럭시 워치 시리즈는 한층 고도화된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다. 특히 워치 시리즈 가운데 최초로 '최종당화산물 지표' 기능을 탑재해 일상 속에서 노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2024' 행사를 개최하고, 웨어러블 제품인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7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공개했다.

삼성전자 MX사업부장 노태문 사장은 "최신 갤럭시 웨어러블 제품은 삼성전자의 최첨단 헬스 기술과 혁신에 결



삼성전자가 10일 공개한 웨어러블 기기 '갤럭시 워치 울트라'를 착용한 모습. /구남영 기자

럭시 AI가 더해져 더욱 건강한 일상을 지원한다"며 "사용자는 이를 통해 한 차원 높은 인사이트를 제공받고 완전히 새로워진 건강 관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갤럭시 워치7, 일상 속 종합 건강 모니터링 지원

'갤럭시 워치7'은 진화된 혁신 센서 기술을 통해 고도화된 모니터링과 개인 맞춤형 기능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추가된 '바이오액티브 센서'는 다양한 종류의 LED 센서를 탑재했으며 센서의

위치도 변경해 더욱 정확하고 다양한 건강 데이터를 제공한다.

특히 워치7은 갤럭시 워치 시리즈 중 최초로 '최종당화산물 지표' 측정을 제공한다. 최종당화산물은 사용자의 생물학적 노화 과정을 반영하는 건강 지표 중 하나로, 평상시 식단과 생활 습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갤럭시 워치7은 센서를 통해 피부에 축적된 최종당화산물 측정을 지원해, 사용자가 건강 상태를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게 돕는다.

이와 함께 '수면 무호흡 기능'을 워치

시리즈 최초로 탑재했다. 해당 기능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으며 정확도를 높인 수면 AI 알고리즘은 더욱 정확한 수면 측정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심장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한다. '불규칙 심장 리듬 알림' 기능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을 감지해 '심방세동(AFib)'의 가능성을 알려준다. 심전도(ECG)와 혈압(BP) 모니터링 기능은 사용자의 심혈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준다.

### ◆'워치 울트라', 운동 매니아에 추천

갤럭시 워치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된 '갤럭시 워치 울트라'는 보다 극대화된 성능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아웃도어 피트니스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 울트라는 원형 디자인에 새로운 쿠션 디자인이 더해져, 보다 강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

특히 울트라는 야외 활동에 최적화된 내구성을 제공한다. 강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티타늄 프레임을 적용하고, 10ATM 방수를 지원해 바다 수영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해발 고도 마이너스(-) 500미터에서부터 최대 9000미터 높이까지 사용을 지원해, 극

한 환경에서도 다양한 피트니스 활동을 측정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사용자의 운동 효율을 극대화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멀티 스포츠 타임' 기능은 수영, 사이클링, 철인 3종, 듀애슬론 등 다양한 멀티 스포츠의 결과를 측정해 준다.

특히 늘어난 배터리 수명도 워치 울트라 장점이다. 절전 모드 경우 최대 100시간, 운동 중 절전모드에서는 최대 48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갤럭시 워치'와 '갤럭시 링'을 함께 사용하면, 사용자는 더욱 향상된 건강 모니터링을 경험할 수 있다. 끊임 없이 데이터를 측정을 통해 더욱 종합적인 건강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며, 두 제품을 모두 사용하면 헬스 측정의 효율화를 통해 '갤럭시 링'의 배터리 지속시간이 최대 30%까지 연장된다.

워치 시리즈와 갤럭시 링은 오는 24일부터 전세계에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갤럭시 링은 티타늄 블랙, 티타늄 실버, 티타늄 골드 3가지 색상이 총 9개의 사이즈로 출시되며, 가격은 49만 9400원이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두산, '클린에너지·스마트머신·첨단소재'로 구조 재편

## 에너지·합병·포괄적 주식교환 결정 사업 조정으로 시너지 창출 기대

두산그룹이 사업 시너지 극대화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 구조 재편에 나섰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Clean Energy)', '스마트 머신(Smart Machine)', '반도체 및 첨단소재(Advanced Materials)' 등 3대 부문으로 정하고, 계열사들을 사업 성격에 맞는 부문 아래 위치하도록 조정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퓨얼셀 등을 주축으로 하는 '클린에너지' 부문은 원전 및 SMR, 가스·수소터빈, 해상풍력,

수소 및 암모니아, 리사이클링 등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된다.

'스마트 머신' 부문은 이번 사업구조 재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소형 건설기계 시장, 협동로봇 시장에서 각각 글로벌 탑티어로 자리잡은 두산바캬트와 두산로보틱스가 사업적으로 결합하게 된다. 현재 두산에너지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바캬트는 인적분할,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된다.

'반도체 및 첨단소재' 부문의 핵심은 시스템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분야 국내 시장점유율 1위인 두산테스나다. 이를 중심으로 반도체, 휴대폰, 전기차 배터

리에 들어가는 전자소재 생산 등을 하고 있는 그룹 내 첨단소재 사업이 이 부문에 자리잡게 된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업종 구분 없이 혼재돼 있는 사업들을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끼리 모아서 클러스터화하는 게 이번 사업 재편의 목적"이라며 "이번 재편의 대상이 된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바캬트, 두산로보틱스 3사 모두 '원-원-원'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두산바캬트를 100% 자회사로 두게 되는 두산로보틱스는 두산바캬트가 북미, 유럽 등에 걸쳐 보유한 강력한 네트워크 및 파이낸싱 역량 그리고 경영인프라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선진시장에서의 성장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또한 두산바캬트의 생산시설 자동화 확대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협동로봇 제품 공급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캡티브 매출 증대도 긍정적인 효과로 예상된다.

무인화, 자동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산바캬트는 두산로보틱스의 로봇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다양화할 수 있게 되고, 두 회사의 기술을 접목한 신개념 제품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관계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모션 제어 기술 개발, 비전 인식 기술 강화, 고성능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 양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오던 R&D(연구개발) 과제를 공동수행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견어내고 시너지를 내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존 지배구조에서 그룹의 중간지주 역할을 해오던 두산에너지빌리티는, 본연의 에너지 사업과 미래 성장동력인 원자력, SMR, 가스·수소터빈, GT·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또한, 이번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약 1조 2000억원 가량 차입금 감축 효과가 발생함으로써 재무구조도 개선된다.

두산 관계자는 "이번 사업구조 재편은 효율적 경영환경 조성과 사업부문별 시너지 창출 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 새로운 사업기회를 찾고 넓혀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두산바캬트, 두산로보틱스 3개사는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고 분할, 합병, 포괄적 주식 교환 등을 결정했다.

/차현정기자 hyeon@

# 한화큐셀, 美서 257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착공

축구장 790개 규모 부지에 모듈 공급 2025년부터 순차적 상업운전 시작

한화솔루션 큐셀부문(이하 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총 규모 257MW(메가와트)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를 개발(Develop)하고 공사에 착수한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시공(EPC)도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한화큐셀은 전력 수요처(off-take)인 플랫 리버 전력청(Platte River Power Authority; PRPA)과 착공식을 개최하고 발전소 건설에 본격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콜로라도 주 웰드(Weld) 카운티에서 축구장 790개 크



한화큐셀이 미국 콜로라도주에 건설 중인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 /한화큐셀

기에 맞먹는 약 1400에이커(약 5.6km<sup>2</sup>) 규모의 부지에 54만 개 이상의 모듈을 공급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개발 및 건설하는 사업이다.

발전소는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상업운전을 시작해 PRPA와 맺은 PPA(전력 공급계약)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

력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한화큐셀은 미국에서 연달아 대형 그린에너지 프로젝트의 개발·EPC를 수행하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사업 기회를 적극 확보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지난 5월 50MW 규모의 태양광 모듈과 200MWh 용량의 ESS(에너지 저장장치)로 이뤄진 프로젝트의 건설을 완료하며 재생에너지 솔루션 공급 기업으로서의 역량을 증명하 바 있다.

이 발전소는 현재 미국 빅테크 기업인 메타(Meta) 사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같은 해 4월에는 와이오밍 주에서 1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모듈 공급·EPC를 모두 수행한 끝에 완공했다. /차현정기자

# LS전선, 도시철도용 전차선로 국산화

R-Bar 구조 단순... 유지보수 편해 전차선 교체비용 80% 감축 기대

LS전선이 국내 도시철도의 노후된 구조물 교체에 나선다.

LS전선은 도시철도용 직류(DC)용 강제 전차선로(Rigid Bar, R-bar)를 국산화했다고 11일 밝혔다.

R-bar는 전력을 공급하는 전차선을 알루미늄 합금으로 된 바(Bar)에 일체로 고정시킨 구조물이다. 일자 형태로 도시철도의 터널과 지하 구간과 같은 협소한 공간에 주로 사용된다.

저속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주로 DC 1500V 전기방식을 사용한다. 그동안 국내는 DC용 R-Bar가 개발되지 않

아 일본산 T-Bar(T자 형태)와 카테너리 방식(전차선을 공중에 매달아 사용)을 채택해 왔다.

R-Bar는 기존 T-Bar 대비 구조가 단순해 공사 및 유지보수의 경제성과 편의성이 높다. 터널건설 비용은 30%, 전차선 교체 비용은 80%까지 줄일 수 있으며, 전차선 교체와 고장 시 응급 복구도 용이하다.

LS전선 관계자는 "구형 T-Bar는 다른 나라에서는 더 이상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도시철도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노후된 T-Bar와 카테너리 방식을 R-Bar로 교체하는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기자

# 中 감산 했지만 재고떨이 우려… 韓 철강 실적회복 먹구름

중국 조강 3월 생산량 7.8% 줄어  
국내 기업, 떨이 반덤핑 제소 준비  
'슈퍼 엔저'에 日 제품도 속속 수입

중국산 철강 기업이 낮은 수요와 수익성 악화로 감산에 들어갔음에도 국내 철강사들은 여전히 긴장감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중국산 제품의 재고 떨이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도 놓여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 제소 준비에 분주하다. 정부 역시 중국산 제품의 국내 대량 유통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의 조강 생산량은 올 들어 3월까지 전년 대비 1.9% 감소했다. 특히 지난 3월 생산량은 전년 대비 7.8% 줄었다. 장기간의 수익성 악화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생산 억제조치가 힘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중국의 공급 축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전경.

소가 지속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 중국 남부에서 빈번한 열대성 폭풍이 건설 활동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되다. 또한 이미 발표된 부동산 부양 정책들이 추진력을 잃고 있으며 여름 비수기 동안 시장을 크게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따른다.

회복세를 보일지라도 중국 철강마진이 급격하게 축소된 상황에서 전년동기대 비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가동률이 전망된다.

다만 중국 기업의 감산에도 여전히 국내 철강사들의 실적 회복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

다. 그동안 중국산 저가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시장에 밀려들면서 국내 업계들은 피해를 입어왔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 583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3% 감소했으며, 현대제철은 영업이익 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83.3% 감소할 정도로 시장 악화 수준은 심각하다.

이에 국내 철강사들은 중국산 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중국이 수요부진으로 남은 물량을 저가로 대량 판매하며 시장가격을 왜곡하며, 엔저를 등에 업고 가격을 낮춘 일본산 제품이 속속 수입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내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한국철강협회 통계를 보면 지난해 국내로 수입된 열연강판은 전년보다 24.4% 증가한 422만2000톤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일본산은 221만7000톤, 중국산은 179만톤으로, 각각 전년보다 수입량이 29.9%, 26.0% 늘었다.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하기로 결정하고 중국산 제품에 따른 피해 상황 파악에 나섰다. 포스코 또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덤핑 조사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제품 국내 생산량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나 반덤핑 조사에 대해 찬반 의사를 밝힌 국내 생산자(무응답 제외) 중 5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열연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철강사 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해 반덤핑 제소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산 열연제품을 수입해 가공한 뒤 재수출하는 국내 철강사들이 저렴한 중국산 수입재를 규제하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철강의 감산과 수요 회복으로 하반기 수급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은 보수적으로 내다보고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HD현대중-한화오션, 美 MRO 경쟁구도

현대중공업, 美 해군과 MSRA협약  
한화오션,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미국 함정 유지보수(MRO) 사업에서도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최근 한화오션이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 인수를 통해 미국 함정 MRO 사업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HD현대중공업은 미국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을 알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이하 MSRA)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함 등에 대한 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

MSRA는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으로, 미국이 운용하는 함정의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MSRA를 사전에 체결해야 한다.

지난해 5월 MSRA 신청 이후 시설 및 품질 실사, 보안 실사, 재무 실사를 거친 HD현대중공업은 이번 MSRA 체결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이미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필리핀 함정의 MRO 실적을 바탕으로 아시아, 남미 등 권역별 MRO 시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 미 해군 함정 MRO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군 당국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정부가 발주하는 함정, 특수목적선, 관공선 등 신조사업 수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주원호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그동안 총 18척의 함정을 수출한 독보적인 기술력과 필리핀에서 축적한 MRO 사업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함정 MRO 시장에 연착륙함으로써 K-함정 수출의 지평을 더욱 넓혀 나가

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화그룹은 지난달 20일 미국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 조선소를 인수하고 미국 함정 MRO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기업이 미국 현지 조선소를 인수해 조선업에 진출한 것은 처음이다. 필리 조선소가 보유한 도크는 앞으로 MRO 사업 현장으로 사용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한화오션이 호주 오스탈 조선소 인수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스탈 조선소를 인수할 경우 호위함 프로젝트 선정 시 후속함 건조를 위한 현지 생산능력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어서다.

한화오션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선박 기술, 스마트십 기술, 스마트 야드 기술 등을 필리 조선소에 효과적으로 접목함으로써 압도적인 기술 및 원가 경쟁력을 갖춘 조선소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

## 효성중공업, 호주에 350억 변압기 공급

코퍼스트링2032 주요 공급사 참여

효성중공업이 호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참여한다.

효성중공업은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 전력회사 파워링크(Powerlink)사와 350억원 규모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효성중공업은 호주 퀸즐랜드 내륙에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동부 해안까지 연결하는 송전망 건설 프로젝트인 코퍼스트링2032(Copperstring2032)의 주요 공급사로 참여하게 됐다.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2032년 브리

즈번 올림픽 개최에 맞춰 전체 발전 전력의 70%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퀸즐랜드는 연간 300억일에 달하는 일조량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용이한 조건을 갖췄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10년 간 호주 전력 시장에서 제품 공급, 유지 보수 등 토털 솔루션 공급 업체로 인정 받아왔다. 지난 2023년에도 남호주와 뉴사우스웨일즈를 잇는 송전망 사업인 에너지커넥트(EnergyConnect) 프로젝트에 전력기기를 공급하며 호주 신재생에너지 전력망 구축에 참여했다.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이사는 "효



효성중공업이 호주 파워링크사와 변압기 공급 계약 체결식 행사를 가졌다. 대릴 로웰 파워링크 CFO(왼쪽), 우태희 효성중공업 대표.

/효성중공업

성중공업이 글로벌 송전시장에서 쌓아온 노하우와 경쟁력을 기반으로 호주 퀸즐랜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허브로 거듭나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지난 6월 9일 광양지역에서 개최된 2024 포스코 콘서트 자녀 돌봄교실.

## 포스코 직원, 평균 자녀 수 2년연속 늘었다

2년 전 1.51명→올해 1분기 1.55명  
'가족·출산 친화제도' 시행 영향

포스코 직원의 평균 자녀 수가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포스코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족출산 친화제도의 영향으로 분석하고 있다.

11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 직원 평균 자녀 수는 2022년 1.51명에서 2023년 1.54명, 올해 1분기 1.55명으로 상승하고 있다. 평균 자녀 수뿐 아니라 포스코 직원의 결혼과 출산도 평균보다 빠르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남성의 결혼 연령이 평균 34세인 것과 비교해 포스코 남성 직원은 이보다 2.1세 어린 31.9세에 결혼했다. 첫 아이를 출산하

는 연령도 국내 남성 평균 33세에 비해 1.9세 어린 31.1세를 기록하고 있다.

포스코 직원의 평균자녀수도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따라 과거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2019년 직원 평균 자녀 수는 1.59명이었다. 포스코 직원의 출산율 증가 및 이른 결혼의 배경은 포스코에서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중심으로 가족·출산친화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로 회사는 분석하고 있다.

포스코는 그 동안 가족·출산친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제는 한 단계 나아가 제도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이고 출산·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위한 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양성운 기자

## 한화 글로벌, 20년간 재생에너지 전기 공급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거래계약

한화가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도입을 시작했다. 한화 글로벌부문은 K-RE100 이행을 위하여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와 20년간 매년 약 5398MWh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공급하는 내용의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한화는 앞서 2024년 1월 K-RE100에 가입했으며, 2040년까지 전력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기로 전환하겠

다는 목표를 공시한 바 있다.

이번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맡게 될 한화신한테라와트아워는 한화컨버전스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투자하여 출범한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 사업 전담 법인이다.

재생에너지 전기는 질산과 질산암모늄을 생산하는 온산공장(울산 소재)에 공급할 예정으로, 이는 온산공장 전력사용량의 2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박대성 수습기자 iunmids@



#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 2024.07.17(수) 14:00~17:00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前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대표이사  
前 한국투자증권 자산운용본부장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前 미래에셋투자자산운용 연구센터 대표  
前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 CIO 및  
경영관리부문 대표이사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겸임교수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미국 주식 관련 투자 전문 애널리스트

### ● 행사개요

행사명: 2024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

주 제: 밸류업 K-마켓, 100세시대 안전망

일 시: 2024년 7월 17일(수) 14:00~17:00 (VIP 티타임 13:30~14:00)

장 소: 서울 여의도동 한국거래소(KRX) 1층 컨퍼런스홀

주 최: 메트로신문, 메트로경제

후 원: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 록: 사전등록 무료(현장등록 5만원)

문 의: 100세플러스포럼 사무국 02)721-9818,

forum@metroseoul.co.kr

※ 포럼에 참가하는 분께 소정의 사은품을 증정합니다.

###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프 로 그 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티타임: 13:3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 <개회사>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기조강연	14:20~15:00	이채원 라이프자산운용 이사회 의장 : 국내외 경제상황 진단과 금융투자시장 전망
강연	15:00~15:40	김경록 미래에셋자산운용 고문 : 100세시대 자산관리 전략
	15:40~16:20	정재훈 KB국민은행 부동산사업부(P) 수석차장 : 부동산시장 진단과 투자 전망
	16:20~17:00	김세환 KB증권 리서치본부 투자컨설팅부 팀장 : 해외주식 투자전략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증권株, 2분기 실적개선 기대감... 하반기도 강세 지속 전망

KRX 증권지수, 이달 7% 올라  
은행, 보험주 보다 높은 상승률  
밸류업·美 주식수요 증가 영향

은행과 보험 등 금융주 대비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던 증권주가 최근 증권사들의 2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반기 증권 업황 개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증권주의 상승흐름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로 구성된 KRX 증권지수는 이달 들어 7%가량 상승, KRX은행(4.62%), KRX보험(1.25%)등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앞서 KRX 증권지수의 연초부터 지난 6월까지 상승률은 11%로 KRX 보험(30%), KRX은행(26%) 등보다 한참 낮았다. 개별종목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키움증권은 약 15% 올랐으며 삼성증권은 12%가량 뛰었다. 미래에셋증권(6.56%), NH투자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증권주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활기찬 주식시장 이미지.

증권(3.62%), 한국금융지주(2.29%) 등도 오름세를 보였다.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 것이라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국내 주식 거래가 활성화된 데다 인공지능(AI) 붐에 미국 주

식 수요도 늘면서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 지난 2분기 국내 증시 일평균거래대금은 21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같은 기간 해외주식 거래대금은 46% 증가한 13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2분

기 커버리지 5개 증권사의 합산 순이익은 전분기 대비 13% 감소한 1조 711억원이지만, 이는 컨센서스를 13%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국내외 증시 거래대금이 견조한 수준을 이어간 점과 시중금리 하락으로 보유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시장 기대치 대비 좋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밸류업 정책 구체화에 따른 기대감도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선진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증권사들도 하반기 밸류업 계획 발표와 공시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메리츠금융지주는 지난 4일 당기순이익의 50% 이상을 주주 환원하기로 한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했으며 미래에셋증권은 3분기 중 밸류업 공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의 증권사들도 기업가치 제고 방안 계획을 검토 중이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은행에 이어 증권사도 주주환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및 소각까지 활용하며 주주환원정책의 가시성을 제고하기 시작했다"며 "현 상황상 양호한 증시 거래대금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수익 비중이 높은 증권사 중심으로 주주환원정책의 가시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인닝(PF) 우려도 축소되고 있어 증권주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분석된다. 조 연구원은 "양호한 2분기 실적을 통해 부동산 PF 우려완화가 예상된다"면서 "수도권 비중이 높은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총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SK이노, 자사주 소각 1위에도 주주 기대 못미쳐

올해 주가 23.59% 떨어져  
총 319% 주주환원율 보여  
SK온 부진 지속, 부정적 영향

올해 상반기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 소각 1위를 기록하면서 높은 주주환원율을 보였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유상증자까지 단행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자회사 SK온의 실적 부진이 이어지면서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현재까지 주가가 23.59% 하락했다. 최근 SK E&S와의 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15.57% 뛰었지만 이후 빠르게 원상복귀하는 흐름을 보였다.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주가는 10만7200원으로 52주 최저가인 10만원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반기 자사주



SK이노베이션 울산공장 전경

/SK이노베이션

를 가장 많이 소각한 상장기업은 SK이노베이션(7936억원)이다. SK이노베이션은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해 총 319%의 주주환원율을 보였다. 다만 자사주 소각 1위에도 주주들의 기대에는 부응하지 못했다.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7936억원(491만9974주) 규모의 자사주 소각에 나섰다. 이제까지 배

당 위주의 주주환원 정책을 펼쳤던 만큼 주목된 결정이었다. 당시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대규모 유상증자 등으로 인해 폭락한 주가가 유지된 시점이었음에도 잠시 상승세를 보인 후 차츰 하락했다. 사실상 주주들 입장에서는 '조삼모사'인 셈인데, 그마저도 주가를 회복하지 못한 모습이다.

지난해 6월 26일 유상증자를 결정했

던 SK이노베이션의 주가는 이날부터 연속 4거래일 동안 13.47% 하락했다. 유상증자 규모는 1조1400억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3156억원 정도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채무상환에 투입되면서 주주들의 불만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전에도 고점 대비 약 15.46% 가량 떨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가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진 셈이다.

당시 최영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상증자에 따른 지분희석 및 주가가치 훼손은 아쉬운 부분"이라면서 "SK온의 수익성이 SK이노베이션 주가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으나 향후 SK온의 상장 시에는 기업가치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인 바 있다. SK온에 대한 지분율 하락 및 지주사 할인, 더불어 SK이노베이션은 재차 정유, 화학 등 고탄소배출 산

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상증자 직후의 주가가 바닥일 것으로 예상됐던 것과 달리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주가는 더욱 급락했다. 애초에 SK온의 실적 우려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었고, SK온의 투자비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도 단행했었지만 SK온은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자사주 소각 1위임과 동시에 주주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이유다. 지난달에도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의 합작사 블루오벌SK에 약 8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등 지원을 더했다.

강동진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K온의 턴어라운드 가 지연되고 전반적인 2차전지 업황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며 "SK온의 대규모 투자 소요로 SK이노베이션 주력사업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이 향후 SK온에 지원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SK이노베이션 주가에 있어 가장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한투운용 'ACE 글로벌반도체 ETF', 순자산 5000억 돌파

"개인투자자 관심 주효"

한국투자신탁운용은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상장지수펀드(ETF)가 순자산액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해당 ETF의 순자산액은 지난 9일 5046억원을 기록하며 처음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달 19일 4000억원을 돌파한 이후 14영업일 만으로, 지난해 말 순자산액 1113억원보다 4배 이상 몸집이 커진 셈이다.

해당 ETF의 빠른 성장은 높은 수익률과 개인투자자 매수세 덕분으로 풀이된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69.18%로 국내 상장 31개(연초 이후 수

익률 집계 가능한 ETF 개수) 반도체 ETF 가운데 레버리지를 제외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최근 6개월, 1년 수익률은 각각 69.74%, 91.41%를 기록했다.

개인투자자들의 관심도 주요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설명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를 1375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내 상장된 23개 글로벌 반도체 ETF의 개인투자자순매수금액 평균인 369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ACE 글로벌반도체TOP4Plus SOLACTIVE ETF는 글로벌 시장지배력을 가진 종목에 집중 투자해 반도체 산업에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ETF다.

해당 ETF는 반도체 산업을 4개 세부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의 시장점유율 1위 기업을 선정해 약 80% 비중으로 투자한다. 4개 기업별 편입 비중은 현재 ▲엔비디아(25.23%) ▲TSMC(21.83%) ▲ASML(18.37%) ▲삼성전자(15.32%)로 나타난다. 그 외에도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시가총액 상위 10위 내 위치한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AMD 등을 2~4% 내외로 편입하고 있다.

김승현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컨설팅담당은 "지난 5월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411억 달러였던 AI반도체 시장 규모는 연평균 21.6% 성장해 2028년 133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 거래소, 코스닥 상장사에 '밸류업' 협조 당부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간담회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코스닥 상장기업에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정 이사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코스닥 대형·금융·중견기업에 이은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대상 행사이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10개사의 재무담당 임원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는 재무실적 및 기술력 등이 인정되고 기업지배구조

가 우수한 기업을 지정한 것으로 이날은 골프존, 더블유씨피, 서울반도체, 스튜디오드래곤, 심텍,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컴투스, 휴젤, HPSP, JYP엔터테인먼트 등이 참석했다

정 이사장은 "기업가치 제고는 주주환원 뿐만 아니라 성장을 위한 투자 등 기업 상황에 맞는 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주주와 적극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다양한 공시사례가 축적되면 내부 의사결정이나 계획 마련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반응했다.

한국거래소는 향후에도 다양한 기업군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하은 기자

중소·중견기업 2면

# 중견사 절반,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 90% 정규직 선발

〈신입+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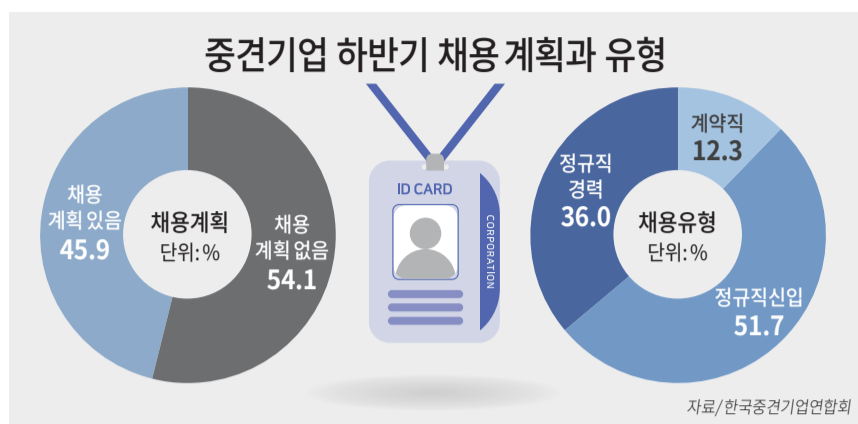
중견련, 기업 412곳 고용 전망 채용기업 84% 규모 늘리거나 유지 65% 대졸초임 연봉 4000만원 미만

‘산업의허리’인 중견기업들이 국내외 경기 침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채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10곳 중 8곳 이상은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견기업 10곳 중 5곳 가량은 하반기에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대졸 초임이 4000만원 미만이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412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중견기업 고용 전망 조사’를 실시해



11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45.9%가 올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중견기업의 84.1%가 상반기 대비 신규 채용 규모를 ‘유지’(52.9%)하거나 ‘확대’(31.2%)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

은 15.9%에 그쳤다.

하반기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중견기업의 30.5%는 ‘사업확장 및 신사업 추진’을, 15.3%는 ‘실적 개선 및 수요 증가’를 이유로 꼽았다. 45.8%는 ‘기존 인력 이탈 충원’을 주요 채용 요인으로 답했다.

상반기 대비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

고 응답한 중견기업들은 ‘실적 악화 및 수요 감소(23.3%)’, ‘적합한 인재 채용 애로(13.3%)’ 등을 꼽았다.

계획하고 있는 신규 채용 유형은 ‘정규직 신입(51.7%)’이 가장 많고 ‘정규직 경력(36.0%)’, ‘계약직(12.3%)’이 뒤를 이었다. 이런 가운데 중견기업의 절대다수인 87.9%가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직군별로는 ▲기술·생산직(37.6%) ▲연구·개발직(18.4%) ▲사무·관리직(16.0%) ▲영업·마케팅직(13.1%) 순으로 채용 애로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인력 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사업 확대(29.4%) ▲세제지원 확대(21.4%) ▲고용 유연성 제고(18.4%) ▲인력양성 프로그램 강화(12.6%) ▲산업단지 및 지방기업인프라 조성(10.9%)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3월 이후 월별 채용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하반기 신규 채용을 진행하겠다고 답한 것은 경제역동성 유지 측면에서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채용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단기적인 고용 지원 정책은 물론 일자리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노동·환경·세제 등의 전반적인 구조 개혁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견기업의 64.5%는 대졸 초임 연봉이 4000만원 미만인 것으로 파악됐다. 구간별로 ‘3500만~4000만원’은 26.9%, ‘3000만원~3500만원’은 37.6%로 집계됐다. 4000만원 이상은 28.1%, 5000만원 이상은 3.6%로 각각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중소 93% “여름휴가 계획”... 62% “휴가비는 안줘”

중기중앙회, 기업 500곳 대상 조사 77% ‘개인연차’ 24% ‘별도 연차’ 38% 휴가비 지급... 평균 56만원

중소기업의 92.8%가 올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3곳 중 2곳은 별도의 휴가비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여름휴가 계획 조사’ 결과를 11일 내놨다.

결과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비율은 92.8%로 집계됐다. 여름휴가 방식에 대해선 ‘개인 연

차휴가 활용’(76.5%)을 한다는 기업이 ‘별도의 연차휴가 부여’(23.5%) 대비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별도로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평균 ‘3.6일’이다.

응답 기업의 62.3%는 임직원에게 별도의 휴가비(지원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지급 계획이 있는 기업(37.7%)의 별도 휴가비(지원금)는 평균 ‘5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단체 휴무를 시행하는 기업은 37.3%로 조사됐다. 단체 휴무 시기는 ‘7월 말’(53.2%), ‘8월 초’(41.6%) 순으로 많았다. 단체 휴무 기간은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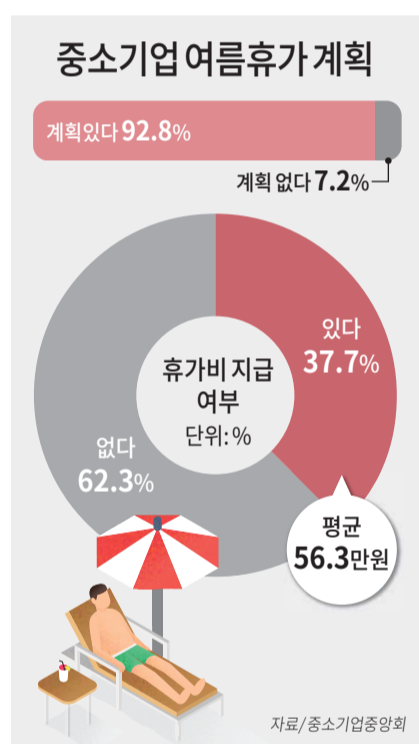
일’(67.1%), ‘5~6일’(19.1%) 순으로 나타났다.

여름휴가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의 여름휴가 계획 부재 이유는 ‘연중 수시 휴가 사용’(63.9%), ‘인력부족’(19.4%) 등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여름휴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휴가비 지원·휴가비용 법인세 공제 등 재정 지원’(67.6%)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여행 바우처 제공, 여행비세제 혜택 등 여행비 지원’(60%), ‘서비스 품질 향상, 관광지 물가 안정 등

관광 품질 개선’(16.2%), ‘숙박시설, 교통편 등 인프라 개선’(11.4%)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2023년 연평균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이상 길고 6번째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라며 “특히 국내 여행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및 내수경기의 진작효과 등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휴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CJ대한통운, 94년 물류업 외길... 수주확장 기반 마련

CJ대한통운, 사업장 700여곳 축구장 1600개 규모와 맞먹어 3자물류·택배 등 인프라 갖춰

CJ대한통운이 사업 추가 유치를 통한 물류 영역 확장을 위해 국내 업계 최대의 물류영업 자산을 심층 활용하고 있다.

11일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각지에서 운용하는 보유 및 임차 물류센터와 택배 터미널, 그외 사업장 부지와 건물 면적 총합이 전국 700여 곳, 약 113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물류기업 최대 규모로 축구장 160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크기이자 여의도 면적의 1.4배 수준이다. 여타 국내 대표적 물류기업들과 대비시 2~3배 크다.

CJ대한통운은 94년간 물류업 외길을 걸어온 전문기업으로 충실한 물류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주요 내역으로 전국 각지의 3자물류 인프라가 있다. CJ대한통운은 소비재(CPG), 유통, 제약, 패션뷰티, 이커머스 등 5개 산업군별 기업에 3자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CJ대한통운이 전국 각지에 보유한 3자물류, 택배 등 관련 물류 인프라와 첨단 물류설비들.

있다. 이를 위해 전국에 195개의 물류허브와 거점센터들을 운영 중이다.

또 택배업계 1위 기업으로서 촘촘한 택배 인프라도 갖고 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곤지암메가허브를 비롯한 14개의 허브터미널과 276개의 서브터미널을 운영한다. 최근 소형택배 분류 전문 시설인 안성MP허브 등도 구축했다. 또 작년 신규가동한 이천과 용인 풀필먼트센터 3개소 등 이커머스 관련 시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같은 전국적인 인프라와 물류 전반에 걸친 사업역량 덕분에 기업간 물

류(B2B), 소비자 배송(B2C)은 물론 전 과정에 걸친 풀라인업 서비스(B2B2C)까지 모두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연평균 500억원 가량의 무형자산 투자를 집행하는 등 기술투자에도 남다른 관심을 지속하고 있다. 실제 스마트 패키징, 물류현장 디지털 트윈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개발은 이같은 무형자산 투자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CJ대한통운 인프라 투자 전략의 핵심은 미래를 내다본 ‘선제 대응’이다. 대표적 사례가 2016년 ‘곤지암 메가허

브터미널’ 착공이다. 곤지암 메가허브는 코로나19로 유통업체 주문량이 20% 이상 급증했을 당시 이를 무리없이 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3자물류 분야에서도 일찍부터 산업군별 상품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 운영 역량을 갖추는데 집중했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AI)와 물류로봇 등 첨단기술과 설비를 갖춘 풀필먼트 센터 확충도 같은 맥락이다. 이커머스 셀러들이 고효율 물류를 통한 비용합리화에 집중할 것을 내다본 앞선 투자를 진행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말 기준 CJ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커머스 고객사는 그 전 대비 4배 가량 급증했다. 고객사 카테고리도 명품, 패션, 식품, 펫용품 등으로 다변화됐다.

CJ대한통운 윤진 한국사업부문 대표는 “압도적 물류 인프라를 통한 규모의 경제와 타사 대비 3~5년 앞선 기술력에 의한 효율성 향상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면서 “차별화된 3자물류 역량과 지속적 혁신을 통해 고객사의 성장과 소비자 편의 증대에 한층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기아·한국닛산 등 15만6740대 리콜

국토부, 총 32개 차종 대상

국토교통부는 기아와 한국닛산, 현대자동차, 포르쉐코리아, 한국토요타 자동차 등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32개 차종 15만6740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아쏘렌토 13만9478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HECU) 내구성 부족에 따라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오는 15일부터 리콜에 들어간다. 닛산의 Q50 2.2d 등 8개 차종 8802대는 프로펠러 샤프트 제조 불량으로 17일부터 리콜을 진행한다.

현대 일렉시티 등 2개 차종 2887대는 인슐레이터 내구성 부족에 따라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지적됐다. GV70 2782대는 엔진점화장치 연결볼트 제조 불량으로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포르쉐 911 카레라 4GTS 카브리올레 등 17개 차종 2054대는 차선 유지 기능 작동 중 운전자에게 시각신호를 알리지 못하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7일부터 리콜을 시작한다. /안שמ 기자 smahn1@

#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iLED 육성에 8년간 4840억 투입

**산업부, '무기발광산 얼라이언스' LG·삼성 등 주요 기업과 방안 논의 기술경쟁력 확보·해외시장 선점 목표**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발광(iLED)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와 산업 생태계 구축에 8년간 4840억원을 투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전자,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서울바이오시스, 동진썬미켈, 주성엔지니어링, 경희대, 연세대, 디스플레이산업협



26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광융합엑스포에서 한 업체부스에 투명 디스플레이가 전시되고 있다. /뉴시스

회 등 주요 디스플레이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무기발광(iLED, inorganic Light Emitting Diode) 디스플레이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소자를 R.G.B 화소로 이용하는 디스플레이를 말

한다. 수명이 길고 휘도·소비전력 등에서 장점이 많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국내 무기발광 산업은 LED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생태계가 미흡한 상황으로, 정부는 작년 5월 출범한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지난 5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해 2025년~2032년까지 8년간 484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논의했다.

산업부는 올해 새롭게 지원을 시작한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무

기발광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하고, 산학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술 교류회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또 초기 시장 창출을 위한 디스플레이 실증사업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OLED에 이어 차세대 무기발광 산업에서도 경쟁국 대비 확고한 기술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기술개발은 물론 세계·금융지원 및 인력양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는 한편, 첨단산업에서는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한 만큼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유류세 환원' 인상분 이번주부터 본격 반영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회의' 휘발유 리터당 30.3원 올라 업계에 가격안정화 동참 요청**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다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석유 가격에 반영되면서 석유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11일 오후 관계부처, 업계, 기관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율은 이달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 경유는 37%에서 30%로, 액화석유가스는 37%에서 30%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주부터 반영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석유가격 동향을 점검한 결과 6월 30일 대비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유류세 인하 폭 축소 등으로 2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30.3원, 경유는 리터당 31.4원 올랐다. 다만, 알뜰주유소의 판매가격 상승분은 휘발유 리터당 24.6원, 경유 리터당 26.3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유류세 환원에 따른 가격 인상분이 이번 주부터 본격 반영되는 만큼, 정부는 부처별 역량을 총 결집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업계에서도 국민물가부담 완화를 위한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재부, 국토부, 국세청, 공정위 등이 참석해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석유가격·품질 점검 결과와 각 부처별 계획도 공유했다.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 그간 66개 주유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개 주유소의 수급보고 위반이나 부가세신고 등 10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와 세무서에 통보했다.

이와 병행해 산업부가 고유가에 편승한 불법 석유유통 방지를 위해 올해 3월~6월까지 불법 이력이 있는 1568개 주유소에 대해 석유가격·품질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에서는 가짜석유 4건 등 80개 주유소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 대구 자립준비청년 위한 생활 필수 교육

에너지 복지부터 금융 예방까지 지원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9일 대구 중구에서 신용보증기금, 한국부동산원,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대구지역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사회 진출을 위한 생활 필수 교육을 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스공사를 비롯한 대구지역 4개 공공기관은 이날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각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역량을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 캐시백 등 에너지 복지제도 신청 방법 ▲가스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산업재해 신청 및 보상 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고, 신용보증기금은 ▲기초 금융교육과 보이스피싱 예방법을, 한국부동산원은 ▲계약 방법 및 전세 사기에 방을 위한 필수점검 사항을, 한국장학

재단은 ▲청년기 학자금 대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시설에서 바로 사회로 나오다 보니, 안전사고와 금융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컸다"며 "교육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자립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작은 힘을 보태고자 공동으로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립을 시작하는 청년들의 첫걸음이 외롭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가스공사와 지역 8개 공공기관은 기관별 혁신성과를 공유·전파하기 위한 상호협력체인 '혁신추진단'을 발족했으며, 대구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송미령 농식품장관 헛사와 첫 출하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올해 하반기 사과 가격 안정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11일 대구 지역을 방문해 헛사와 생육상황 및 출하 일정을 점검했다. 송 장관은 특히 "올해만큼 헛사과를 기다렸던 적이 없었다"며 "이번에 출하가 시작된 썬머깬에 이어 쓰가루(아오리), 홍로 등 조·중생종 사과 출하가 7월 중하순부터 본격화되면, 시장 공급도 충분해지고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나해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높아 부담이 컸던 국민들의 장바구니가 한결 풍성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대구 군위군에 위치한 대구경북농업농협군위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헛사와 선별 및 출하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사과 생육과 재해대응 상황 등을 살펴봤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탄소중립 목표, 가전제품 관리 앱과 달성"

녹위-삼성전자 업무협약 국민 실천 캠페인 등 전개

가전제품 관리 앱의 인공지능 기능을 활용하고 자동 수요반응(AutoDR)을 통해 손쉽게 에너지절약과 탄소감축을 실천하는데 민관이 힘을 모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삼성전자와 이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최남호 산업2차관, 김상협 탄핵위 민간공동위원장,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이 참석해 협약서에서 명했다.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삼성전자 가전제품 관리 앱의 AutoDR 기능을 통한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한 국민 실천 캠페인을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집표-탄소편' 대국민 캠페

인 실행을 위한 국민 DR(Demand Response, 수요반응) 발령 시간 데이터 제공 및 가전제품 관리 앱 연동, 대국민 탄소중립·녹색성장 생활 실천 확산을 위한 지원 등에서 본격 협력할 계획이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절약은 필요하지만 불편하다는 인식도 여전하다"며 "국민DR 발령 신호와 가전제품 관리 앱의 연동을 통한 에너지집표-탄소편 캠페인은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상협 탄핵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민관이 힘을 합쳐 보다 쉽게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돼 매우 고무적이다"고 했고, 삼성전자 박찬우 부사장은 "삼성전자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기술로 실질적으로 탄소저감에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 개최

"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노사발전재단은 11일 대전 KW컨벤션에서 '2024년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컨설팅 사례를 바탕으로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례를 공유하고, 사업 간 연계 방향성을 토론했다.

우수사례 발표에서 가구제조업체 자코모는 일터혁신 컨설팅 이외의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임직원 역량강화와 교육제도 고도화를 추진해 기업 경쟁력을 높였다고 밝혔다.

2020년 일학습병행제 시행, 2021년 대표 교육 프로그램인 소과 아카데미 운영, 2023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한 교육훈련체계 설계와 멘토링 제도 도입 등을 추진했고, 그 결과 연간 이직률

은 전년 대비 4%포인트 감소했고, 생산직군의 청년 비율은 2020년 대비 13%포인트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 2024년엔 일학습병행제 대상을 사무직까지 확대해 지속 혁신 활동을 추진중이다.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의 자회사로 글로벌 연수 사업을 운영하는 민간기업 코웍스의 경우, 지난해 일터혁신 컨설팅과 정부 지원사업인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며 근로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일반직 임금 수준 격차 해소와 시설관리직 직무급표 개선 등 임금체계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

노사발전재단은 노사파트너십 기반 일터혁신 제도 도입을 위해 코웍스 외에도 지난해 총 57개소의 사업장에 일터혁신 컨설팅과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이자카야 나무의 여름휴가 응원!



# 1억 원 1천명 경품 이벤트



## 2024. 7.15.~8.31.

이자카야 나무에서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4인 골프 라운딩 (그린피+카트비) 6명 등  
1천 명에게 1억 원의 선물을 드립니다!

### 기간

2024. 7. 15. ~8. 31. (1.5개월)

### 대상

이벤트 기간 내 저녁 방문 모든 고객 (점심 고객 제외)  
테이블 수에 맞춰서 스크래치 복권 1매 제공 및 응모  
금액 결제 시, 복권 제공

### 참여 방법

팜 없는 스크래치 복권 (기간 내 중복응모 가능)

### 이벤트 발표 및 경품 지급

15개 지점 현장  
샤넬 핸드백, 샤넬 클러치백, 골프 라운딩(4인 그린피+카트비) 등

Tel: 02-511-6787 / E-mail: namu19817@naver.com

[www.namulove.co.kr](http://www.namulove.co.kr)

### 경품 내용

- 1등 샤넬 클래식 핸드백(11.12 클래식 핸드백) x 1명  
(1,800만 원 상당)
- 2등 샤넬 클러치백(클래식 클러치 미디움 은장) x 3명  
(750만 원 상당)
- 3등 4인 골프 라운드권 x 6명  
(900만 원 상당)
- 4등 10만 원 식사권 x 192명 (약 1,90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5등 쿠보타센쥬 사케(96,000원) x 240명  
(약 2,300만 원 상당)
- 6등 5만 원 식사권 x 576명 (약 2,880만 원 상당),  
식사권은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7등 참여자 전원 생맥주 두 잔씩(복권 한 장 당 생맥주 2잔)  
다음 방문 시 사용 가능

# 신규장르·글로벌 시장 개척으로 '흥행신화' 이어간다

## 게임업계, 신작으로 하반기 성과 도모

코로나19로 한 때 호황을 누렸던 게임업계는 엔데믹 이후 유저들의 게임이용 시간·소비가 줄어들자 불황 국면을 맞았다. 그 과정에서 늦어지는 신작, 인건비 상승 등의 이유로 악순환은 장기화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게임사들은 각 사의 방식대로 회복에 집중해 오면서 올해 상반기 실적 개선은 고무적이다. 대다수 게임사들은 우선 본업인 신작 출시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신작흥행이야말로 기업의 실적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신작 개발 과정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다. 스토

리, 캐릭터 등 기본적인 것뿐 아니라 장르의 다양화, 글로벌 다각화, 콘텐츠, 플랫폼의 확장, 퍼블리싱 등 온 과정을 모두 예민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길게는 몇 년을 한 게임 개발에만 매진한 신작이 출시 후 흥행하지 못했다고 해도 탓할 곳은 없다. 분명한 건 끝까지 버티는 게임사가 결국은 승리를 맛 볼 것이라는 점이다. 유저들의 입맛에 맞는 게임성이 흥행과 직결되는 만큼 신작 개발과정을 더욱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하반기 신작들이 다수 출시될 예정이다. 게임사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년 상반기의 실적 반등을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메트로경제>는 하반기 신작 게임 출시 예정중인 몇 게임사들과 개발자들을 만나 현시장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 3주에 걸쳐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세 번째 기업들은 ▲위메이드 ▲펄어비스 ▲크래프톤이다.

(편집자주)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

## WEMADE

◆ 위메이드, 게임·블록체인으로 글로벌 확장 속도 박차

위메이드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외연 확장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올해를 게임과 블록체인 플랫폼 품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해 전 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위메이드는 올 여름을 시작으로 동남아, 유럽, 북미 등 더 넓은 시장을 노린다. 1분기 게임 부문 매출 1522억원을 달성한 위메이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을 제외한 동남아, 유럽, 북미 시장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전 세계 확장을 위한 사업 성공 가능성을 내다봤다.

흥행 성과를 맞춘 위메이드는 올 2분기 해외 매출 비중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 출시 예정인 신작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를 통해 게임 매출 부문에 더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메이드, 게임·블록체인 플랫폼 등 역량 집중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통해 게임매출 공략 오는 16일 위믹스 데이 행사... 새로운 계획 소개

위메이드는 중국 시장 공략도 계속 이어간다. 올해 위메이드는 중국 시장에 '미르4'와 '미르M' 출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

성공적인 출시를 위해 지난 2023년 중국 국가신문출판서를 통해 '미르M'을 현지 서비스명 '모광쌍용'으로 하는 판호를 발급받았다.

여기에 '더나인'과 현지 퍼블리싱 계약 체결을 완료해 중국 정식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미르4'는 올해 4월 중국 37게임즈와 현지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했고 판호 발급만을 남겨둔 상태다.

전 세계 확장이라는 포부를 품은 위메이드는 게임에 이어 블록체인이라는 두 번째 카드도 꺼내 들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22년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를 출시했다. 이에 기반해 '나이트 크로우'를 비롯해 '미르4', '에브리 팜' 등 다양한 장르의 게임이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다.

특히 40만 명 이상의 전 세계 유저들이 '나이트 크로우'를 즐기고 있으며 전세계에 출시된 지 4년이 지난 '미르4' 또한 현재 동시접속자 수 20만 명에 달하고 있다.

흥행 신화를 이어가기 위해 위믹스 재단은 이달 16일 위믹스 데이 행사를 개최한다. 행사 당일에는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위믹스 플레이'의 새로운 계획이 소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롭게 선보일 고도화된 블록체인 서비스와 토큰믹스도 처음으로 공개된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위메이드표 블록체인 게임 성공이 플랫폼 매출로 이어지며 글로벌 블록체인 플랫폼으로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며 "블록체인 게임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미르 시리즈를 통해 중국 시장 매출 역시 견고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

## KRAFTON

◆ 크래프톤, 국내게임사 중 '익스트랙션 RPG장르' 첫 글로벌 진출

크래프톤은 올해 하반기에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인 블루홀 스튜디오가 제작 중인 모바일 신작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을 목

표로 준비 중이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던전에서의 탈출을 주제로 하는 익스트랙션 RPG 장르 게임으로, 배틀로얄 장르의 '생존'과 던전크롤러 장르의 '탐험', 그리고 역할수행게임(RPG) 장르의 다양한 요소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특히 크래프톤의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익스트랙션 RPG장르로 국내 게임사 중에선 처음으로 글로벌에 진출하는 첫 사례라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연내 출시를 앞두고 오는 8월 초 한국과 미국, 일본, 튀르키예 등 주요 시장에서 첫 글로벌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크래프톤은 '다크앤다커 모바일'을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게임쇼인 '게임스컴'에 우선 출품한다.

크래프톤은 지난 3일 '게임스컴 2024' 공식 웹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등 공식 채널을 통해 게임스컴 참가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티저 영상을 통해 출품작과 함께 게임의 새로운 재미를 발굴해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방향성을 뜻하는 '스케일업 더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주제로 한 크래프톤 부스의 콘셉트를 미리 볼 수 있다. 크래프톤은 부스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을 위해 '다크앤다커 모바일'과 '인조이' 등 출품작의 시연 기회 및 다양한 이벤트를 제공할 계획이다.

크래프톤, '다크앤다커 모바일' 글로벌 시장 출시 국내 게임사 중 익스트랙션 RPG장르로 첫 사례 이용자들과 활발한 게임소통... 중요 방향성 삼아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이용자들과 활발하게 상호 소통하며 게임을 만들어가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게임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블루홀스튜디오는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 바 있다. 채용 모집 분야는 테크와 사용자 경험&사용자 인터페이스(UX & UI), 아트, 게임 디자인 등이다.

이를 통해 앞서 이용자 의견 반영을 주시하겠다는 뜻에 힘이 실린다.

블루홀스튜디오의 조두인 대표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할 크래프톤의 전략 프로젝트"라며 "글로벌 서비스의 론칭과 성공을 위해 역량 있는 인재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크래프톤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모바일"은 신규 장르를 새롭게 개척하는 게임으로 글로벌에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출시까지 게임성에 최선을 둘 것"이라며 "글로벌 진출 후 게임이 대중화되길 바란다. 이를 통해 잠시 주춤한 국내 게임 시장이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진영  
펄어비스 대표

## PEARLABYSS

◆ 펄어비스 하반기 전략은 '온고지신'... '검은사막' 성과 이어 나가면서 '붉은사막'도 출시

펄어비스는 하반기 여름을 맞아 라이브 IP '검은사막'의 지속적인 변화를 통해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신규 IP의 성공적인 출시를 위한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이다.

'검은사막'은 펄어비스가 직접 개발한 다중 역할 게임(MMORPG)으로 지난 2014년 12월에 처음 출시돼 지금까지 10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기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펄어비스의 노력은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미 펄어비스는 지난 6월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검은사막'의 대규모 이용자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검은사막'내 '하이텔' 도시의 모티브가 된 프랑스에서 연회를 열어 그 의미를 더했다.

펄어비스, '검은사막·아침의 나라' 지속 성과 차기작 '붉은사막' 출격 대기... 개발 마무리 내달 세계 3대 게임쇼 '게임스컴' 참가 예정

펄어비스는 이달 27일에 매년 여름 시즌에 진행해온 '검은사막 모바일'의 '2024 하이텔 연회' 행사를 개최해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다가갈 예정이다. 더불어 이달에는 대규모 PVP 콘텐츠인 '검은사막 300vs300 PvP' '장미 전쟁' 정규 시즌도 선보인다.

기존 성과를 이어가기 위한 펄어비스만의 특별한 마케팅도 돋보인다. 펄어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아침의 나라' 후속편 '아침의 나라: 서울'을 올여름 중 선보인다. 우리나라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콘텐츠 '아침의 나라'의 완결판인 '아침의 나라: 서울'은 경복궁, 창덕궁 등을 게임 속에 재현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용자들이 실제로 서울에 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이는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화 작업에 노력하는 게임사들과 다르게 한국을 알리려는 펄어비스의 발상의 전환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외에도 펄어비스는 캐릭터의 다양화와 개성 있는 전투 방식으로 하반기 흥행을 기대한다. 게임 이용자는 '아침의 나라: 서울' 검은사막을 통해 '장화홍련', '불가살', '흑봉황' 등 총 10종의 우두머리를 만나 볼 수 있으며 각각 우두머리마다 개성있는 전투방식도 즐길 수 있다. '아침의 나라: 서울'은 내달 7일 국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전세계 서버는 현지화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된다.

옛것에 더해 새로운 IP 출시도 펄어비스의 하반기 전략에 포함됐다. 차기작 '붉은사막'이 하반기 출격 대기 중이다. 현재 '붉은사막'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마케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라고 펄어비스 측은 설명했다.

이를 위해 펄어비스는 전 세계적인 마케팅 홍보를 진행 중이다. 그 일환으로 내달 세계 3대 게임쇼 중 하나인 독일 '게임스컴'에 참가할 예정이다. '게임스컴'에서 게임 이용자 대상 게임 시연을 최초로 진행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안재선 수습기자 vitna@metroseoul.co.kr



# 신세계L&B “진짜 위스키 넣은 ‘하이볼’… 해외 진출도 목표”

## ‘에반 버번 하이볼’ 2종 출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와 맞손 독일 설비 이천 브루어리서 생산 편의점·대형마트서 17일 판매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가 RTD 주류 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세계L&B

신세계L&B와 국내 대표 수제맥주 브랜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협업해 하이볼을 선보인다. 아메리칸 대표 버번 위스키인 ‘에반 윌리엄스’를 활용한 ‘에반 버번 하이볼’을 앞세워 시장 리더로 올라선다는 포부다.

11일 신세계L&B와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제품 출시 배경과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는 “최근 한국 RTD(즉석음료) 주류 시장이 지속 성장하고 캔 하이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에반 윌리엄스를 활용한 캔 하이볼을 출시하게

됐다”며 “일본과 미국의 RTD 주류 시장을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꾸준히 견고하게 성장해온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이후 주류 소비 트렌드가 유흥시장에서 가정시장으로 옮겨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홈술·하이볼)수요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향후 일관된 형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에반 버번 하이볼’은 애플과 레몬 2

종으로 출시된다. 용량은 355ml이며, 알코올 도수는 5도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가 제품을 출시·생산·영업 등을 담당하고, 신세계L&B가 전반적인 브랜드 마케팅과 상표 제휴 등을 담당한다.

에반 버번 하이볼은 독일산 최고급 설비를 보유한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이천 브루어리에서 생산된다. 또한 신세계 소속 전문 믹솔로지스트(카테일

믹싱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지닌 사람)가 블렌딩에 참여해 과일 향과 위스키의 적절한 밸런스를 구현했다.

김태경 대표는 “기존 시중에 유통되는 하이볼은 유사 위스키나 오크향을 입힌 제품이 대부분”이라며 “‘에반 버번 하이볼’은 진짜 위스키 원액을 넣어 만든 제품으로 최적의 레시피에 최상의 양조 기술을 더해 완성한 정통 버번 하이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에반 윌리엄스’ 수입사인 신세계L&B 측의 도움으로 실제 위스키 원액을 넣으면서도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에반 버번 하이볼은 편의점 4사(이마트24·GS25·CU·세븐일레븐)와 대형마트 3사(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에 입점이 확정됐고, 17일부터 판매된다. 가격은 편의점에서

에반 버번 하이볼 2종 /신세계L&B

한 캔당 4000원, 행사가를 적용해 4캔 1만2000원이다.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에반 버번 하이볼’의 올해 목표 판매량을 300만캔으로 잡았다. 김 대표는 “최근 소비자들은 맛과 기술력이 확실한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우선 국내 RTD 주류 시장에서 1위를 선점하고, 향후에는 해외에도 진출해 일본 하이볼과 대등하게 대결하는 게 장기적인 목표”라고 전했다.

한편,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는 2016년 성수동의 목공소를 개조해 문을 연 양조장을 시작으로 2019년 수도권 단일 규모 최대의 이천 브루어리를 준공해 맥주와 RTD 주류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브랜드로는 ‘서울술 라거’ ‘노을 페일에일’ ‘첫사랑 IPA’ ‘안동하이볼’이 있으며 미국 H-마트와 대만 세븐일레븐에 수출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쌀밥맛·밤맛’ 식물성 단백질음료 인기

CJ제일제당, 3개월 매출 30억 출시 후 누적 판매량 100만개 돌파



엘티브 프로틴 쌀밥맛, 밤맛. /CJ제일제당

CJ제일제당은 식물성 단백질 음료 ‘엘티브 프로틴 쌀밥맛·밤맛’이 지난 4월 출시 후 3개월만에 누적 판매량 100만개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매출액은 약 30억원으로, 일반적으로 가공식품 신제품이 월 평균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면 히트상품으로 불린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시장에 빠르게 안착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티브 프로틴 쌀밥맛·밤맛’은 국민 브랜드인 햇반·맛밤과 CJ제일제당의 사내벤처가 만나 단백질 음료를 새롭게 재해석한 제품이다. 쌀 분말, 밤 페이스트 등을 활용해 색다른 맛을 구현했

며, 음료 용기에도 햇반, 맛밤 고유의 디자인을 적용해 보는 재미를 더했다.

이번 제품의 인기 요인으로는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구현한 맛과 대중적으로 인기 높은 브랜드와의 협업으로 색다른

이미지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 CJ제일제당은 고소한 쌀과 달콤한 밤 맛으로 단백질 음료 특유의 텁텁하고 쓴 맛을 최소화했다. 또한 단백질 음료에서 찾기 힘든 색다른 콜라보 제품이라는 점이 호평을 받았다.

한편, 2022년 6월 처음 런칭한 ‘엘티브’는 CJ제일제당 식품 사내벤처 ‘이노백(inno100)’ 프로그램을 통해 MZ세대 직원의 아이디어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진 식물성 음료 브랜드다. ‘새로운 식물성 식품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Alternative’에서 따온 용어로, ‘건강하고, 맛있고, 가장 새로운 식물성 식품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웰니스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신원선 기자

# 롯데마트·슈퍼 ‘상생 배추·무·간마늘’ 선포

시세보다 평균 30%가량 저렴

롯데마트·슈퍼가 ‘상생’으로 채소물가를 잡는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며 채소 물가가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추와 무는 고온 영향으로 생육 저하가 발생하며 생산량이 감소했고, 곧 이은 장마에 의한 품질 저하로 추후 작황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9일 가락시장 경매가 기준으로 무는 1개당 1900원대, 배추는 한 포기당 4300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시세는 전년 대비 각 50%, 140% 이상 상승한 상황이다.

이에 롯데마트·슈퍼는 채소값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시세보다 평균 30% 가량 저렴한 ‘상생 배추, 무, 간마늘’을 판매한다.

무와 배추는 14일까지 4일간 선보이며 간마늘의 경우 초복 수요에 발맞춰 오는 17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행사 기간 동안 ‘상생 배추(1.5kg 이



제타플러스점 잠실점 농산대장에서 상생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는 이동은MD(왼쪽), 홍윤희MD. /롯데마트

상’)는 2590원, ‘상생 무(800g 이상)’는 1290원 ‘상생 간마늘(1kg/봉)’은 5990원에 선보인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보이는 상생 상품들은 크기가 다소 작거나 일부 흠집이 있지만 맛과 영양은 일반 상품들과 큰 차이가 없다. 롯데마트·슈퍼 채소MD는 상생 농산물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문경, 의령 배추 산지와 고창 무 산지, 고흥과 창녕의 마늘 산지 작황을 직접 살피며 무 60톤, 배추 20톤, 햇간마늘 35톤을 물량을 확보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 정관장 ‘화애락’, 뮤지컬 메노포즈와 맞손

관람객 대상 100% 당첨 이벤트 ‘SNS 인증샷’ 추천 통해 경품증정



화애락 3종 제품 라인업 /KGC인삼공사

정관장은 여성 건강 전문 브랜드 ‘화애락’이 중년 여성들이 겪는 다양한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뮤지컬 ‘메노포즈’와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12일부터 8월 4일까지 매주 금·토·일 주말 메노포즈 관람객을 대상으로 ‘카카오 선물하기’ 위시리스트에 화애락 화애락 베스트 3종을 추가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화애락 타닝미, 화애락 와이즈미, 화애락 액티브미 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100% 당첨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화애락 액티브미 본품도 증정한다.

정관장은 뮤지컬 메노포즈가 4060여

성들의 갱년기 고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다른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화애락 제품 이미지와 부합된다고 판단하여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다.

지난 6월부터 성황리에 공연중인 ‘메노포즈’는 ‘누구나 겪는 갱년기를 말할 고민처럼 대하는 것이 아닌 여자로서 또 다른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유쾌한 입담과 흥겨운 음악으로 전하는 뮤지컬이다. /신원선 기자

# 동아제약 퇴행성관절염 증상 완화 ‘맥스 콘드로이틴 1200’

동아제약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퇴행성 관절염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맥스 콘드로이틴 1200 경구용겔’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아제약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콘드로이틴셀레이트나 트롬을 국내 최대 1회 함량인 1200mg을 함유했다. 콘드로이틴은 연골, 뼈, 각막 등을 구성하는 결합조직에 널리 분포해 있는데, 연골을 보호하는 탄성섬유의 주성분이다. 해당 성분 복용 시 퇴행성 관절염 증상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동아제약 측의 설명이다.

동아제약 ‘맥스 콘드로이틴 1200’은 콘드로이틴 성분 중 국내 최초 경구용 겔 유형 제품이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토피넛향(커피맛)까지 갖췄다. /이청하 기자 mlee236@

# “신선식품 선도 떨어지면 무조건 교환·환불”

SSG닷컴 ‘신선보장제도’ 운영

SSG닷컴이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먹거리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선식품 품질보증서비스 ‘신선보장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시간대 지정 배송 서비스 ‘쓱배송’ 또는 ‘새벽배송’ 받은 신선식품의 선도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경우 조건 없이 교환, 환불받을 수 있다. 상품 사진을 촬영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어 절차

도 간편하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신선보장’ 배너가 있는 상품이 적용 대상이다.

SSG닷컴은 배송 전 과정에서 상품이 적정 온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를 바탕으로 선도 유지에도 힘을 쏟는다. 물류 시설은 물론, 배송 차량에도 냉장 및 냉동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차량 내부 온도 역시 실시간 모니터링된다. 하절기 냉장 및 냉동상품 배송 시에는 아이스팩 등 보랭제를 추가로 투입한다. /최빛나 기자

#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세계 정상급 선수 대거 출전

스코틀랜드 르네상스 클럽서 개최  
4일간 진행... 총 상금 900만 달러  
로리 맥길로이·잔더 쇼플리 등 참가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열리는 르네상스 클럽 전경.

현대자동차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가 후원하는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별들의 전쟁'으로 화려한 첫 발을 내딛는다.

DP 월드투어 톨렉스 시리즈 중 하나로 유럽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2024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이 스코틀랜드 노스 베릭에 위치한 르네상스 클럽에서 개막한다.

이번 대회는 11일(현지시간)부터 14일까지 총 4일간 진행되며 DP월드투어, 미국프로골프협회(이하 PGA투어), 한국프로골프협회(이하 KPGA 코리아 투어) 소속 선수 총 156명이 참가한다.

'2023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인 로리 맥길로이(세계랭킹 2위)를 비롯해 잔더 쇼플리(세계랭킹 3위), 루드비그 오베리(세계랭킹 4위), 윈덤 클라크(세계랭킹 5위), 빅토르 호블란(세계랭킹 6위)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가해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PGA 투어에서 활약 중인 김주형(세

계랭킹 16위) 선수도 참가하며, 2023 제네시스 챔피언십 우승자 박상현, 2023년 제네시스 포인트대상 함정우, 2023년 제네시스 포인트 2위를 기록한 이정환 선수가 제네시스 초청 선수로 참가한다.

이번 대회는 총 상금 900만 달러, 랭킹 포인트 8천점 규모로 우승자에게는 상금 140만 달러와 함께 GV70 전동화

모델이 부상으로 수여된다. 이와 함께 17번 홀에서 첫 번째 홀인원을 기록하는 선수 및 캐디에게 각각 GV70 전동화 모델과 GV60이 부상으로 제공된다.

제네시스는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제네시스 차량 163 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회가 열리는 르네상스 클럽 곳곳에 GV60을 비롯한 제네시스 차량 12대를 전시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제네시스사업본부장 송민규 부사장은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뽐낼 수 있도록 최상의 코스 환경과 세심한 케어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회를 찾아주시는 관람객 수도 매년 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 홀인원 이벤트 도입 등을 통해 팬 경험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롯데호텔앤리조트, 장마 재난피해 지원

호텔 기업 롯데호텔앤리조트가 장마철 재난으로 인한 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해 나섰다.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지난 10일 부산롯데호텔과 함께 대한적십자사에 이재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롯데호텔앤리조트



교원라이프, 상조 전환 서비스 확대

교원라이프가 결혼정보회사 수련과 상조 전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11일 교원라이프에 따르면 양사는 협약에 따라 ▲상조 전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휴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교원라이프 회원은 상조 상품의 납입금을 장례 대신 수련의 프리미엄 결혼정보 서비스로 전환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교원라이프



IBK기업은행, 익스피디아그룹과 숙박 할인

IBK기업은행은 지난 10일 서울 중구 IBK파이낸스타워에서 글로벌 여행업계 선두기업인 익스피디아그룹과 퇴직연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여행·숙박 할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등을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 등에 익스피디아그룹의 여행숙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 HD현대, '인구의 날' 기념 대통령 표창 수상

임신·출산·육아 지원책 시행  
저출산·고령화 극복 기여 인정

HD현대가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조성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HD현대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표창은 단체 포상 중 가장 훈격이 높은 상이다.

HD현대에는 임신·출산·육아 관련 다양한 지원책 시행, 유연근무 적극 활용, 13개 계열사에서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한 점 등 모범적인 일·생활 균형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설명했다.

HD현대에는 그동안 임직원들의 양육

/양성운 기자

부담 해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가족친화 제도를 꾸준히 시행해왔다. 임신 초기와 말기, 전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법정 출산휴가 외에도 별도의 유급 출산휴가를 1개월 더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임직원들이 최장 밤 10시까지 마음놓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드림보트'를 운영하고 있다. 또 만 6세 이상 8세 이하 자녀를 둔 임직원을 위해서 법정 육아휴직과 별개로 최대 6개월의 '자녀돌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HD현대에는 임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비·양육비 지원도 확대했다.

## SPC, 폭우피해 안동·익산 구호물품 지원

삼립 빵·생수 총 2000개 등 전달

SPC그룹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과 전라북도 익산에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SPC행복재단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1일 SPC삼립 빵과 생수 총 2000여 개를 경상북도 안동, 전라북도 익산 지역에 전달한다.

구호물품은 수해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이재민과 현장에 투입된

복구 인력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향후에도 SPC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구호물품이 필요한 지역에 추가 지원을 할 예정이다.

SPC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아 폭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구호물품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구호물품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스타벅스, '국가유산 보조 협약식'

스타벅스코리아가 11일 서울 중구 스타벅스 소공 아카데미에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국민신탁과 함께 '국가유산 보조 협약식'을 진행했다.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환구단점'을 커뮤니티 스토어 9호점으로 새단장하고 국가유산청 및 문화유산국민신탁과 스타벅스 환구단점에서 판매하는 상품 한 개당 300원씩을 국가유산 보호 기금으로 조성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유산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 /스타벅스코리아

## 동반위, 지역 골목상권 상생 돕는다

롯데웰푸드와 상생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가 롯데웰푸드와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11일 동반위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동반위와 협력해 지역별로 숨겨진 식·음료를 발굴하고 제품화를 진행하는 '어썸바이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어썸바이트(AwesomeBite)'란 먹거리에 진심인 소비자들과 롯데웰푸드가 함께 '놀라운 한 입'을 발견한다는 의미의 캠페인을 말한다.

캠페인을 통해 롯데웰푸드는 지역 소상공인의 샌드위치를 발굴, 심사하고 우수 제품을 선정해 총 2000만원의



동반성장위원회 박치형 운영처장(왼쪽)이 롯데웰푸드 여명량 푸드사업부장과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상금을 지급하고 제품화를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어썸바이트 공식 블로그 및 인스타그램, 동반위 공식 카카오톡채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1 | 해질 / 19:54

7월 12일 (금)  
음력 : 6월 7일

수도권 날씨  
23~31°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백령도 20/27, 파주 21/31, 연천 21/32, 동두천 21/31, 가평 21/32, 서울 23/31, 양평 22/32, 인천 22/28, 수원 22/30, 용인 22/30, 평택 21/3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하이투자증권, 취약계층 무더위 극복 활동

하이투자증권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무더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매년 혹서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DGB사회공헌재단의 블루윈드(Blue Wind)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과 노인의 안전한 여름맞이 등을 지원

한다.

하이투자증권은 지난 10일 성무용 하이투자증권 사장과 유지연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00만원 상당의 여름 이불과 40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준비하여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초조정과장 김현욱

## 부음

▲ 이영명(향년 88세)씨 별세, 이재훈·이수희씨 부친상, 김홍주(한국거래소 파생시장본부 부사장)씨 장인상 = 10일 오전 2시, 좋은간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2일 오전 5시30분, 장지 경기도 광주시 스카이캐슬 추모공원. 051-610-9672

ONOFF

2024.7월

FF-247 IV | LADY IRON(LP423)



ONOFF  
LADY IRON  
(LP423)



비가 와도 식지 않는 열정을 위해  
우산 증정 이벤트

(색상 랜덤 증정)



\*행사 기간: 7월 7일 ~ 8월 11일, FF-247 IV | LADY(LP423) 아이언 품목 구매 고객 한정(사은품 조기 소진 시 행사 종료)

\*온오프 홈페이지(onooffgolf.co.kr)정품 등록 필수(회원가입시 등록된 주소로 2주일 이내 상품 발송 -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JULY PROMOTION

ONOFF GOLF

# 급발진 공포, '날벼락'에 그칠까



**차 상 근 의**  
**관망과 훈수**

“길을 걸어가는데 바로 옆 차도에서 갑자기 차량이 덮치면 어떡하지” 요즘 가장 핫한 이야기거리 중 하나가 ‘차량 급발진’이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느닷없는 사고를 당했을 때 ‘날벼락’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 몰아친 날벼락이 ‘급발진포비아’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차량조심, 보행조심을 주문한다.

2019년 이후 당국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는 300건을 훨씬 넘는다. 이중 자동차 메이커의 잘못이나 기계적, 차량 시스템적 결함은 한 건도 없이 운전자 귀책으로 그럭저럭 넘어왔다.

그런데 우리를 주변에서 어른거리던 대형 참사의 그림자가 상상도 못했던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현실화됐다.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시청역 인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에 이어 비슷한 유형의 사고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3일에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로 택시가 돌진해 보행자 3명과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6

일에는 서울역 인근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보행자 2명을 덮쳤다. 9일엔 경기도 수원시 화서동의 3차선 도로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로로 차량 5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운전자는 모두 급발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제조사는 운전자의 조작실수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동안의 급발진 의심사고를 조사해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운전자가 기계적 결함을 입증해야 하는 근본적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고조사를 위해서 국과수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역량을 더 제고해야 한다. 나아가 민간의 전문화된 기관이 사고를 교차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여기서 한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사고원인 논란과는 별개로 부정적 과급효과는 엄청나다. 점이다. 온국민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날벼락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해야 하는 ‘사회적 트라우마’가 생겼다. 일상속에서 무엇보다 친숙한 차량이 두려워졌고 가장 안전해야 할 도심 인도에 대한 공포증이 만연해졌다고 하면

과연일까.

최근 사고가 고령자 등 고위험운전자에게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는 점이 부각되며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급한게 있다. 사고 운전자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차량의 돌발행동을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보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가 고도로 전자화, 전기장치화하면서 가끔 먹통이 되곤 하는 컴퓨터처럼 언제든 오작동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원천차단하는 시스템을 장착하면 훨씬 신뢰를 받지 않을까.

이를 위해 자동긴급제동장치(AEB) 등 첨단 운전보조장치를 모든 차량에 장착하도록 하는게 시급하다. AEB는 카메라나 센서를 활용해 충돌이 예견될 때 차량 스스로 감속 또는 정지하도록 하는 제어장치이다. 버스나 트럭에선 이전부터 장착돼왔고 지난해부터는 승용차와 3.5톤 이하 화물 특수차로 의무화가 확대됐다. 그러나 이미 운행중인 차량엔 강제 장착이 어렵다.

모든 기계장치엔 비상시 즉각 작동을 멈추게 하는 최후의 수단이 있는데 자동차만 이렇게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를 더욱 의아하게 하고 있다. /skc8472@metroseoul.co.kr

# ‘의대생 유급방지책’ 특혜인가 공익인가



**기 지 수 첩**  
**이 현 진**  
(정책사회부)

공익(公益). 공공의 이익. 사전적 의미로 사회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말한다. 교육부는 20일 의대생 유급 방지책이 담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지난 1학기 내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고 그들의 집단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매 학기 결정되는 ‘유급 여부’는 내년 2월로 미뤄졌다. 현재 의대는 수업일수 3분의1이나 4분의1 이상 결석하면 낙제점을 부여하고 한 과목에서라도 낙

제점을 받으면 유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결석 판단 시기를 늦추며 그 조건도 완화했다. 올해는 일부 과목에서 낙제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는다. “복귀만 하면 유급은 없다”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고등교육법상 ‘1년간 30주’로 정해진 수업일수는 28주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대학에 ‘공짜’ 보충학기까지 권고했다. 정부의 전례 없는 조치다. 이번 대책은 정부 말대로 ‘공익’이 출발점이다. 집단 유급이 발생하면 내년 의대 교육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사운영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례로 남게 될 것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다. 국내 대학 역사상 ‘전국에서’ ‘동(同)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으로 수업을 거부한 사례는 없는 데다, 정부는 이들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벗어난 혜택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집단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 지적

도 나온다. 이번엔 나온 ‘꿀잠’ 대책이 되레 ‘꿀까지 버티면 된다’라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 의대생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의대는 해야 할 공부량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이번 대책에 따라 연 수업일 수를 30주 중 2주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수업량은 7% 가량 줄게 된다. 의대 1년 수업 중 전공 서적 1권 분량은 족히 넘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공익’은 농친 셈이다.

의대생 복귀 대책 발표 시기도 ‘공익’을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엔 선불렀다. 돌아올 마음이 없는 의대생들에게 당근부터 내놔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부의 이런 ‘유화책’에도 동맹휴학 분위기는 여전하다. 정부가 추가 시험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본과 4년생들은 국가시험 집단거부 조

오늘의 운세 7월 12일 (음 6월 7일) http://www.saju4000.com

**쥐** 36년생 뚱뚱의 초대로 기본은 좋다. 48년생 물 건너서 소식이 오니 일이 풀림. 60년생 동료와의 협업이 서로에게 도움. 72년생 실망하지 마라 결실이 적어도 후회는 결코 없다. 84년생 재산문제로 배우자 가정과 적대적인 감정이 일어난다.

**소** 37년생 행운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 49년생 실수 연발도 하루하루 인생이다. 61년생 단점이 보이면 고칠 곳을 발견하면 당장 고쳐라. 73년생 평온한 바다에서 대어를 낚는다. 85년생 탓하지 말고 희망을 품고 재도전하라.

**호랑이** 38년생 오늘은 정든 사람과 이별하는 수가 있다. 50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매사 신중하게 행동. 62년생 오늘의 선택이 내일을 좌우함을 명심. 74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86년생 일이 해결되지 않으니 조바심이나 내다.

**토끼** 39년생 가지 못한 길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51년생 농친 고기를 아끼워 말고 내 것을 소중한. 63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청의력이 빛을 발한다. 75년생 운전자는 사고 과속운전은 주의하라. 87년생 공들인 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말** 40년생 모두 좋을 수 없으니 하나는 양보. 52년생 건강 조심 지치지 쉬는 날이니 휴식이 필요. 64년생 위장계통이 안 좋으니 먹는 것에 주의. 76년생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 법이다. 88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뱀** 41년생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 수 있으니 주의. 53년생 마음을 정결히 하고 원하는 바를 기도. 65년생 쥐뿔이 찾아오니 귀인이다. 77년생 기대를 많이 한다면 노력도 그만큼 해야 된다. 89년생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선물이 들어온다.

**닭** 42년생 고랑 치고 가재 잡는 날. 54년생 나도 언젠가 누구에게든 손해를 끼친 적이 있었을 것이다. 66년생 썩지 않으려면 고인 물은 흘러보내라. 78년생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답을 찾자 그럼 해결된다. 90년생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하루.

**개** 43년생 가슴이 답답한데 한잔 술이 위로로. 55년생 배우자 외 다른 이에게 눈길을 주지 마라. 67년생 대결이 시작됐으니 최선을 다해야 된다. 79년생 향기가 없어도 꽃이니까 아름답다. 91년생 공든 탑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 마무리를 잘하라.

**원숭이** 44년생 누구나 외로운 것은 마찬가지. 56년생 물을 두려워하고 수영선수가 될 수 없음을 명심. 68년생 나의 삶에 일이 싫으니 변명만 보인다. 80년생 신념은 확신이 있어야 가능할 것. 92년생 판단력이 흐려지는 날이니 도장은 내일 찍어라.

**닭** 45년생 사방에서 운이 들어오는 날. 57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임하면 못할 것이 없다. 69년생 꿀이 깊으면 산도 높은 법이니 노력하라. 81년생 부지런하여 성공하게 되면 모든 잠움을 없앤다. 93년생 문서 운이 있으니 양띠의 도움을 받겠다.

**돼지** 46년생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말라. 58년생 기다리지 말고 먼저 다가가라. 70년생 겸손하면 주변이 알고 도와주니 마음을 다스려라. 82년생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다는 말이 있듯이. 94년생 조화를 찾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돼지** 47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니. 59년생 상대의 단점을 지적하면 그대로 내게 돌아온다. 71년생 힘든 일은 뒷사람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해결. 83년생 자신의 약점은 꾸준한 공부로 극복. 95년생 호랑이 무서워 산애를 못가겠는가.

## 김상회의 四季 삼복



2024년 삼복은 양력 7월 15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로부터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일庚日이 초복과 중복이 되며 말복은 입추 절기로부터 첫 번째 경일이 되니 근 한 달간 더위의 절정이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 이 열치열의 음식으로 몸을 보호하게 된다. 복날이 모래라 미리 지인과 함께 경북공역 근처의 삼계탕집을 찾았다. 세상애나! 땀별 더위 속에서도 늘어진 줄이 몇십 미터는 돼 보였다. 보아하니 외국 관광객이 태반이다. 복날에 삼계탕집을 찾았다가 사람이 몰려 허탕을 친 적은 있었으나 이 집은 거의 일 년 내내 이렇다.

K-POP과 드라마 등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에 가면 반드시 들려서 먹어야 하는 명소라고 한다. 필자는 다음 기회를 바라며 돌아섰다. 삼복 일로 특별히 경일庚日을 정한 데에는 불별처럼 뜨거운 해가 쇠를 녹일 정도의 더위라는 뜻이 아닐까 싶기도 하다. 삼복의 복(伏)자가 불화(火)에 속하는 여름이 쇠(金)으로 의미되는 가을을 굴복시킬 정도로 더운 날이라 하여 특별히 경일庚日을 삼복 일로 정한 것이 아닐까 싶다. 전래해오는 의미로도 “여름의 불기운에 가을의 쇠 기운이 세 번 굴복한다.”고 하여 삼복이니 말이다.

초복과 중복 그리고 말복은 열흘 간격으로 찾아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올해 갑진년은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 간격이다. 이런 때를 가리켜 월복越伏이라 하는데 여기에도 이유가 있다. 초복과 중복은 하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말복은 입추가 지나야 말복의 자격이 생기기 때문이란단다. 우리의 선조들이 절기와 삼복과의 관계를 나름 합리적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입추가 지나면 신기하게도 열기가 달라진다. 낮엔 똑같이 더위도 살갓에 스치는 바람이 다르다. 오늘은 삼복에 대한 되새김을 한 날이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471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575호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별

## 스도쿠365

문제출이: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고작은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7		6	1	9				
			2					
		3	4		7	1		
	5						4	6
		2				7		
9	1							8
		4	7		1	8		
				4				
		9	8	5				2

7		1	4	6				8
		8	5					
							6	5
							9	1
2								3
5	1							
9	8							
					4	8		
4				9	5	2		6

2	1	7	9	8	6	4	9	
4	9	5	2	7	6	1	8	3
6	8	1	9	4	7	2	5	3
5	8	3	7	4	2	9	1	6
1	6	4	9	5	8	2	7	3
9	7	2	6	8	1	4	9	5
8	5	1	4	6	7	9	3	2
4	7	9	6	2	9	8	6	1
3	2	6	8	1	9	5	7	4



색다른 감각의 이머시브 뮤지컬  
세계 최초 그랜드 오픈

뮤지컬 바다

100

총 짜리 짝

©Toshio IWAI/ KAISEI-SHA

24.07.06(토) ~ 08.15(목)

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새천년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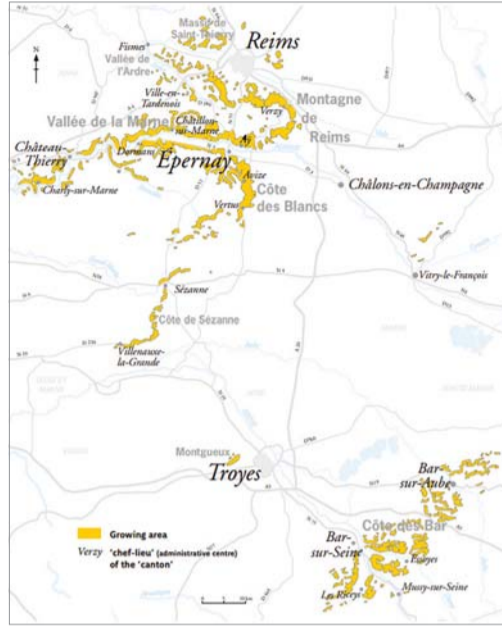
Original Toshio Iwai

주최, 제작 Contents Creative Group Artcube 마케팅 에이전시 컴퍼니 예매 인터파크 티켓 문의 02-766-9001

# 기후변화? 두렵지 않다! 佛 상파뉴·알자스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프랑스 상파뉴 지역.

제로 도사주(Zero Dosage) 샴페인. 알자스의 레드 와인.

요즘 따끈따끈한 와인 트렌드다. 이 두 가지를 관통하는 이슈가 있다. 와인이라면 어려운 와인 용어에서부터 막혀 알쏭달쏭 감을 잡기 힘들 테지만 중급자부터는 아마 눈치챌 수 있는 능력이 높다.

정답은 모두 기후변화가 몰고 온 변화라는 점이다. 사실 기후변화에서 자유로운 와인 생산지는 없다. 유럽은 지난 2003년 이후 여름이 계속 더워지고 있다. 포도가 빨리 익을 수밖에 없다. 20~30년 전과 비교하면 수확시기가 최대 한 달 이상 당겨졌다. 특히 화이트 와인 산지들은 더 비상이 걸렸다. 포도알이 빨리 익어버리면 화이트 와인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산도를 제대로 살리기가 힘들다.

상파뉴(샴페인)와 알자스는 프랑스에서도 샴페인을 포함해 고급 화이트 와인의 산지로 유명하다. 그런데 최근 한국을 찾은 이들 지역 와인너들은 기후변화를 말하면서도 울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해진 약간의 온기가 다양성을 가져다줬다는 분위기다.

샴페인을 만들 때 보면 도사주라는 과정이 있다. 숙성을 진행하면서 병목에 모아진 효모 찌꺼기를 제거하고 나면 모자라는 용량만큼 와인과 당을 추가하는 일이다. 이때 첨가하는 당의 양에 따라 샴페인의 당도가 결정된다.

제로 도사주라고 하면 최근 우리나라에서 몇 년 사이 많이 선보인 제로 슈가 소주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당을 추가하지 않았던 예기다. 그간 너무 튀는 산도를 일부 눌러주기 위해 달달하게 해야 했는데 재배기간 따뜻해진 날씨 덕에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제로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샴페인 하우스가 첨가한 당의 양을 줄이는 추세다. 요리를 할 때도 조미료를 덜 치면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샴페인 하우스들 역시 포도품종이나 떼루아의 특징을 살리는데 최대한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이들이 기후변화에 표정이 밝았던 진짜 이유다.

화이트 와인으로 유명한 알자스 지역에서는 레드 와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피노누아 품종으로 그전에도 와인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알자스 그랑 크뤼급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한 수준이란 말이다.

알자스는 2022년 빈티지부터 51개 그랑 크뤼 지역 중 두 개 지역에 대해 피노누아에도 그랑 크뤼 등급을 표기할 수 있게 허락했다. 알자스가 그랑 크뤼 등급을 만든 1975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파뉴와 알자스라고 해도 언제까지나 기후변화의 안전지대로 남아 있지는 않을 터. 와인 생산자들은 지속 가능한 유기농법으로 미래를 준비 중이다.

박수진 WSA와인아카데미 원장은 서울 서대문구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열린 알자스&샴페인 마스터클래스에서 “매년 날씨를 예측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것처럼 기후변화의 위기는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도의 변화가 너무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와인너들이 모두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나무가 건강하면 어떤 변화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라며 “알자스처럼 친환경 재배가 앞선 곳은 물론 상파뉴와 같이 기후적으로 쉽지 않은 곳도 유기농법으로 전환 중”이라고 전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주말은 책과 함께

### 활력·의지와 창조력 이상의 그 무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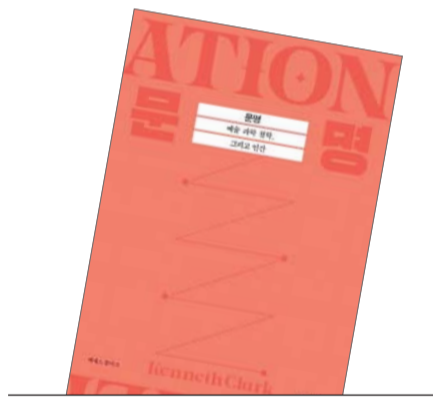
문명이 무엇인지를 단 몇 문장으로 정의하기 어렵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자연 그대로의 원시적 생활에 상대해 발전되고 세련된 삶의 양태를 뜻한다’고 ‘문명’의 의미를 풀어냈으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법. 국립국어원은 그 바로 뒤에 ‘흔히 문화를 정신적·지적인 발전으로, 문명을 물질적·기술적인 발전으로 구별하기도 하나, 그리 엄밀히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는 다소 아리송한 단서를 달아 놓았다.

‘문명’이라는 제목의 책에는 그 해답이 제시돼 있을까. 문명의 저자인 영국의 미술사학자 케네스 클라크는 첫 장에서 ‘나는 문명이 뭐지 모른다’고 고백한다. 그는 문명을 추상적인 용어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문명인지 식별할 수는 있다고 이야기한다.

클라크는 영국의 미술비평가이자 화가인 로저 프라이가 소장했던 아프리카 가면과 벨벳데레의 아폴론을 비교하며 왜 후자만이 고도의 문명을 구현한 작품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책은 “양쪽 모두 인간이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의 어떤 정신을 표상한다”면서 “아프리카 가면의 상상세계는 아무리 작은 금기의 위반에 대해서도 곧바로 무서운 형벌이 가해지는 공포와 암흑의 세계이며, 고대 그리스 조각상의 경우 빛과 자신감의 세계다”고 밝힌다.

사람과 비슷한 형상이지만 우리보다 월등하게 아름다운 그리스의 신상은 인간에게 이성과 조화를 가르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클라크는 “어떤 시대인지 특정할 수는



문명

케네스 클라크 지음/이연식 옮김/소요서가

없지만, 인간은 매일같이 생존경쟁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밤의 공포와 싸우는 한편,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육체와 정신 양면에서 어떤 소질을 의식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한다.

인간은 이 필요를 신화를 통해, 춤과 노래를 통해, 철학체계를 통해, 그리고 시각적인 질서로 채워 나갔다.

저자는 문명은 활력과 의지와 창조력 이상의 그 무엇이라고 역설한다. 바로 영속에 대한 감각이다. 방랑자나 침입자는 늘 유동적인 상태에 놓여 있었고, 그들은 미래 대신 당장 오늘의 전투만을 고민했다. 그래서 돌로 된 집을 짓거나 책을 저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문명이라면 적어도 공간과 시간의 양면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자신이 지나온 곳과 나아가 갈 길을 의식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496쪽, 2만8000원. /김현정 기자 hjk1@

### 월경자의 정치사

시오데 히로유키 지음/임경화, 은희영, 이승찬 옮김/소명출판

책은 일본이라는 주권국가를 중심으로 풀어나간 기존의 정치역사서를 탈피해 국가의 경계를 벗어나 이민과 식민의 형태로 이주한 일본인 ‘월경자’들을 주인공으로 삼아 새로 쓴 정치사다.

저자는 국경을 넘어 거처를 옮기는 이민과 일본의 지배지역으로 이주하는 식민을 함께 다루며, 지배지역에서의 식민주의적인 지배-종속 구조, 본국과 연계 등

으로 형성된 민족 간 관계가 일본의 정치 질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민과 식민의 성격을 동시에 띠는 ‘만주국’ 이주의 복합성, 지배민족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소수자의 처지에서 기득권층과 교섭해야 했던 월경자들의 아이러니를 다층적으로 분석한다.

663쪽, 5만원.



### 세상 멋져 보이는 것들의 사회학

오찬호 지음/북트리거

여성해방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여겨졌던 ‘괴임약’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의 부담을 떠넘기는 근거가 됐고, 알약 한 알로 고통을 견디게 해준 ‘진통제’는 강한 중독성으로 약물 오남용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가능케 한 자본주의의 총아 ‘플라스틱’은 미래 세대가 감당하기 어려운 쓰레기로 돌아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책은 ‘혁신’이라는 빛나는 말

뒤에 얽힌 지옥의 실상을 다룬다. 불편함이 줄었으니 혁신인가. 편리함이 늘었으니 문제없나. 혁신 이후 모두가 풍요와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

저자는 “혁신의 반대편에 지옥이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편리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다가 인간다움, 즉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고 책은 경고한다.

336쪽, 1만7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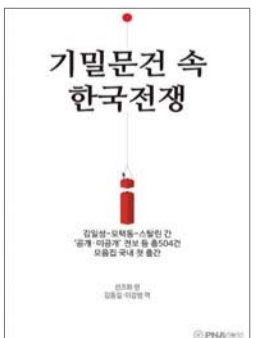
### 기밀문건 속 한국전쟁

선즈와 편저/이강범, 김동길 옮김/피엔에이월드(PNA World)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은 끝났는가. 아니다. 휴전이든 정전이든 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책은 개전 전야와 전쟁 발발에서부터 정전 조인에 이르기까지 한국전쟁 기간 김일성과 모택동, 스탈린이 주고받은 암호 전보와 극비 서한 504건을 사안별 시간 순으로 정리한 모음집이다.

‘항미원조’로 출병을 결단, 압록강을 건너는 모택동과 김일성의 남침을 용인한 스탈린의 의중이 무엇이었는지, 한국전쟁 당시 북한과 중국, 소련은 어떤 관계였는지 등 한국전쟁 관련 정책 결정 과정과 그 내막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왜 이 땅에서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지 밝힌다.

832쪽, 7만2700원. /김현정 기자



## BS11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하원 세입위, ‘中핵연 규제 유예’ IR A규정 거부 결의  
▲15일 서울서 한-뉴질랜드 외교장관 회담…협력 증진 논의 /사진 뉴시스

▲중국 군용기 56대 대만해협 중간선 넘어…항모 훈련 연관  
▲“日, 항공연료 부족 해결 위해 한국서 수입 추진”



▲“헝가리 총리, 나토 회의 후 트럼프와 회동…우크라 평화회담 논의” /사진 뉴시스  
▲필리핀 민다나오섬 남쪽 해상서 규모 6.7 지진



- ① 단지 중앙 조형 플랜터와 팽나무로 꾸며진 '엘리시안 가든'
  - ② 단지 내 설치된 뫼비우스 띠 형상을 띤 조형물.
  - ③ 물길 따라 다양한 꽃들을 식재해 놓은 '피크닉 벨리'
  - ④ 조약돌과 다양한 식물들로 꾸며진 단지 내 조경.
  - ⑤ 엘리시안 가든에 설치된 폭포와 조형물.
  - ⑥ 이벤트 광장에서 가족들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리조트 테라스'
- /김대환 기자

# 숲속 풍경 그대로... 녹음 짙은 정원에서 낭만 충전

## 아파트의 미학(美學) 강동헤리티지자이

길동역 도보권... 주변 휴식공간 풍부  
단지 내 조경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숲속 풍경을 표현한 '엘리시안 가든'  
물길 따라 꽃 핀 산책로 '피크닉 벨리'

문화·건강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  
가족과 여유 즐기는 '이벤트 광장'도

최근 방문한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 아파트 정문에는 회색의 '자이' 로고가 부각돼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깔끔하고 멋스러운 외관을 자랑하는 단지의 입구에는 소나무, 박태기, 산철쭉 등 다양한 식물이 설치됐다. 숲속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풍경은 마치 자연 속 한가운데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강동헤리티지자이는 지하철 5호선 길동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약 15분 정도 걸렸다. 단지 바로 옆에는 신명초·중이 위치해 있어 걸어서 갈 수 있었다. 주변에는 길동생태공원, 길동공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민의 휴식공간이 풍부해 보였다.

'길동 신동아 1·2차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1299세대 규모다.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는 전용면적 ▲45㎡ ▲59㎡ ▲74㎡ ▲84㎡ 등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타입으로만 이뤄졌다.

시공사인 GS건설은 입주민을 위해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주방과 거실이 대면형으로 연계돼 넓은 공간을 확보했다. 주방 다용도실 등 집안 곳곳에 수납공간을 마련했고, 거실에는 우물천장, 포셀린타일 거실아트월, 천정형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기본으로 제공됐다.

단지는 입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 전체를 지하화했다. 주차 공간은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총 1590대(가구당 1.22대)의 넉넉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곳곳에 '강동헤리티지자이'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단지 중앙에는 조형 플랜터와 팽나무로 둘러싸여 깊은 숲속의 풍경을 표현한 '엘리시안 가든'이 설치됐다. 바람과 폭포의 물줄기, 소나무 등이 조화를 이루는 한 폭의 산수화와 같은 경관을 연출하고 있는 공간에는 휴게공간도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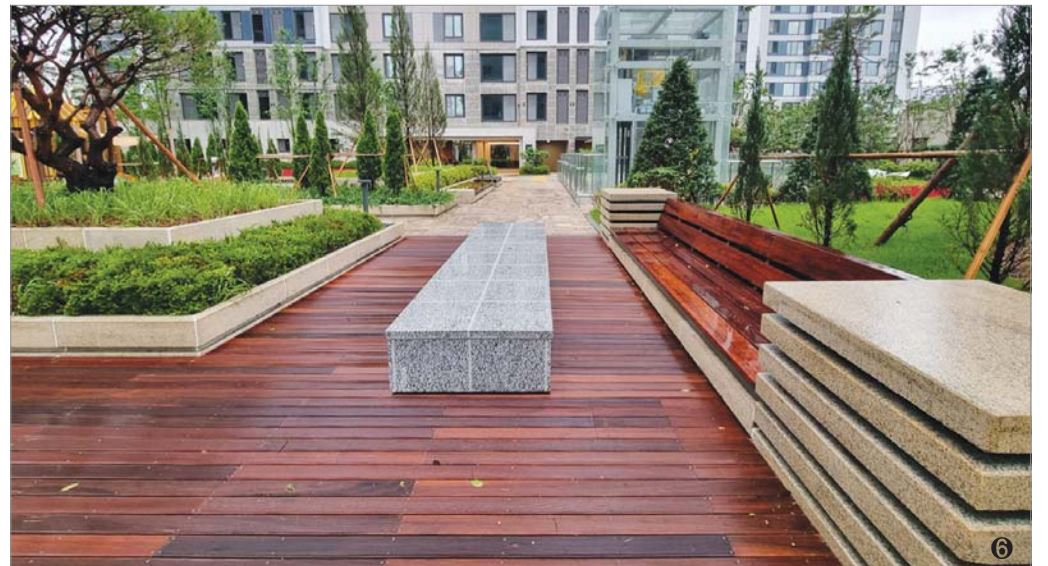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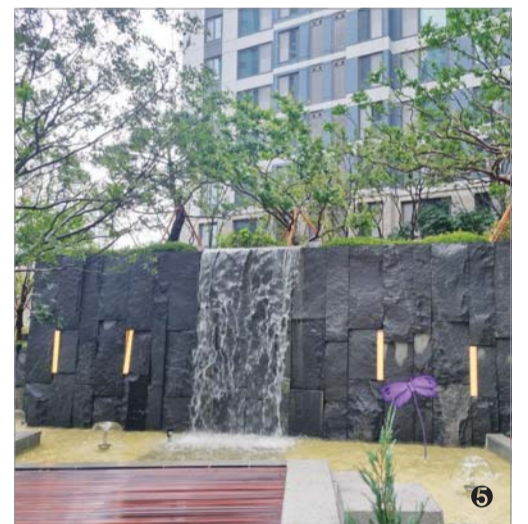
단지 내에는 다양한 정원과 산책로가 조성돼 있었다. 각 동 입구에 설치된 '아웃도어라운지'에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담소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물길을 따라 피어있는 꽃들을 볼 수 있는 '피크닉 벨리'에선 풍부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벤트 광장에서 가족들과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인 '리조트 테라스'에는 테이블과 벤치가 놓여 있어 입주민에게 휴식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는 뫼비우스 띠 같은 유기적인 구조를 가진 조형물이 설치돼 웅장한 느낌을 연출했다. 작가는 테라스 공간 속에 정방형의 사각형으로 일필휘지의 활기찬 형상성을 표현하고자 했다.

단지에는 입주민의 편리와 문화, 건강을 위해 피트니스클럽을 비롯해 GX룸,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카페테리아, 스터디룸, 독서실,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돼 있었다. 어린이집도 자리 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여건을 제공해 줄 전망이다.

동심 가득한 놀이요소와 공간 연출로 아이들의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유도하는 다양한 테마의 놀이터가 설치돼 어린이에 대한 배려도 엿보였다. 동화 테마의 놀이터 '호두까기 인형의 집'을 비롯해 '라퐁젤 마을', '아기 돼지 삼형제', '오즈의 성' 등 다양한 테마 공간은 아이들로 채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대환 기자 kdh@metroseoul.co.kr





신세계L&B  
버번 넣은 하이볼  
해이진출 목표  
L1



Life

제너시스 스코티시 오픈  
세계 정상급 선수  
대거 출전  
L2



# 숙취 잡고, 활력 올리고... “다음날 컨디션까지 책임질게요”

##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HK이노엔 ‘컨디션’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을 개척해 온 HK이노엔의 ‘컨디션’이 올해 출시 33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2년 처음 등장한 컨디션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음주 전후에 숙취해소제를 챙겨 먹는 것을 하나의 문화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 왔다. 회식이나 모임 등 술과 함께할 때면 더 편안한 내일, 더 건강한 아침을 위해 숙취해소제를 챙기는 것이 대중화됐고, 음료를 마시는 이가 있는가 하면 환이나 젤리를 먹는 모습도 흔히 보인다.

소비자층도 초기에는 3040세대 남성 직장인을 중심으로 이뤄졌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를 적극 반영한 컨디션은 누구나 애용하는 숙취해소제로 자리잡았다.

초록병 음료로 시작한 컨디션은 현재 컨디션헛개, 컨디션레이디, 컨디션CEO, 컨디션환, 컨디션스틱 등 5종의 제품군을 갖췄다.

HK이노엔에 따르면 컨디션은 지난 2009년 처음으로 헛개 성분을 사용해 ‘숙취에는 헛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헛개나무 부위 중에서도 ‘열매’를 컨디션 원료로 개발했다.

이에 대해 HK이노엔은 한국생물공학회지에 게재된 ‘헛개나무로부터 생리활성물질의 추출 및 효능에 관한 연구’ 논문을 근거로 한다고 설명한다. 해당 연구에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의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 개척한 ‘컨디션’ 헛개나무 열매로 알코올 분해효과 ↑

음료로 시작해 환, 스틱까지 5종 출시 제품군 확장으로 브랜드 영향력 성장

알코올 분해 효과는 35%로, 헛개나무 잎 추출물 18%, 헛개나무 줄기 추출물 3% 등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컨디션은 숙취해소 특허조성물 3종을 보유하고 브랜드 출시 후 7차례에 걸쳐 제품 효능을 강화하는 등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 HK이노엔 측의 설명이다.

HK이노엔은 지난 2012년 가볍게 섭취할 수 있는 환 형태의 ‘컨디션환’을 내놨다. ‘숙취해소환’ 시장을 새롭게 만들며 시장 변화를 이끈 것이다. 2013년에는 히알루론산 등을 첨가해 사과 맛을 가미한 ‘컨디션레이디’를 선보여 여성 소비자에게도 친근하게 접근했다.

HK이노엔은 2017년에는 보다 강력해진 프리미엄 제품인 ‘컨디션CEO’를 출시해 프리미엄 시장에 진출했으며, 2022년에는 음주 전후 물 없이 간편하게 먹기 좋은 젤리 제형의 ‘컨디션스틱’을 출시해 MZ세대 시장을 공략했다.

HK이노엔이 컨디션 제품군 확장에 주력한 결과, 컨디션 브랜드 영향력은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특히 컨디션스틱의 경우, 출시 당시인 2022년 3월 대비 같은 해 12월에는 판매량이 약 54% 증가했다. 컨디션스틱을 포함한 컨디션의 비음료 시장 점유율은 2022년 약 29%에서 2023년 약 42%로 크게 상승했다.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컨디션의 경쟁력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시장조사



▲ 컨디션 제품군 5종. ▶ 한정판 컨디션 티셔츠 일러스트.



기관 닐슨아이큐코리아에 따르면, 국내 숙취해소제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021년 2200억원대로 주춤했으나 2022년 3000억원을 돌파하고 2023년에는 35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 규모를 형성했다.

맛에 휴대성 갖춘 컨디션스틱 인기  
아르기닌 등 추가해 활력 증진 도움  
양말, 티셔츠 등 유행 맞춘 굿즈 출시  
슬로건으로 소비자와 공감대 형성도

HK이노엔은 2023년 3월에는 컨디션스틱 출시 1주년을 맞이해 기존 컨디션스틱에 에너지 회복과 활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성분인 아르기닌과 비타민B군을 추가했다. 이후 성분뿐 아니라 맛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높였다. 기존 컨디션맛과 그린애플맛에 이어 자두맛과 망고맛을 더한 것이다.

실제로 탱글탱글한 식감과 새콤달콤한 맛, 휴대성이 특징인 컨디션스틱의 누적 판매량은 지난해 12월 기준 약 4200만 포 이상에 달한다.

최근 HK이노엔은 33년 동안 ‘숙취해소 외 길’을 걸어온 컨디션만의 이야기를 담은 TV 광고를 공개했다. 또 디지털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HK이노엔은 ‘어른들을 위한 숙취 동화’라는 주제로 1등이라 행복한 컨디션 왕자가 주인공인 디지털 영상도 제작했다.

HK이노엔은 지난 4월에는 서울 을지로 골목에 3미터 높이의 컨디션 왕자 동상을 설치하고, 컨디션 왕자 동상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을지로 일대에서 컨디션스틱을 나눠주는 행사를 펼치기도 했다.

HK이노엔은 MZ세대와의 접점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아날로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MZ세대 유행의 흐름에 주목해

필름카메라를 활용한 굿즈, 컨디션 모델인 박재범의 애착 양말을 구현한 컨디션스틱 그린애플 양말 등을 기획했다. 지난 2일에는 MZ 유명 일러스트 작가 ‘나무13’과 협업한 시티팝 감성의 한정판 티셔츠 등을 기획했다. 이처럼 HK이노엔은 TV, 디지털, 오프라인 등 다방면에서 소비자들과 소통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동안도 HK이노엔은 다양한 슬로건을 내세워 소비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컨디션 브랜드 슬로건은 ‘접대가 많은 비즈니스맨의 드링크(1992)’, ‘음주 전후 숙취해소를 빠르게! 확 캔다(2009)’, ‘챙기자 내 사람, 챙기자 컨디션(2014~2017)’, ‘확 깨는 상태, 컨디션(2021)’, ‘젤로 확 깨는 판타스틱한 상태(2022~2023)’ 등으로 진화했다.

이에 대해 HK이노엔 관계자는 “과거에는 컨디션이 ‘술자리에서 살아남기 위해’ 먹는 제품이었다면 앞으로는 MZ세대를 주축으로 ‘술자리를 재밌게 즐기기 위해’ 먹는 제품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바꿔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HK이노엔의 숙취해소제 컨디션은 글로벌 고객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컨디션스틱과 컨디션환은 지난 2023년 10월 국내 대형 면세점·오프라인 채널에 입점했다. 엔데믹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HK이노엔은 컨디션을 통해 2030세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즐겁고 건강한 숙취해소 문화를 전파할 계획이다.

/이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한정판 컨디션스틱 그린애플 양말 세트. ▼ 4가지 맛 컨디션스틱.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대한체육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개최...“체육 발전 위해 노력할 것”  
▲진천선수촌에 뜬 황희찬 커피차...파리올림픽 선수단 응원 /사진 뉴시스

▲미국, 파리올림픽에 592명 파견...4회 연속 여성이 남성보다 많아  
▲“음주 운전” 올림픽메달리스트 빙속 김민석, 헝가리로 귀화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공식 홈페이지 오픈  
▲음바페, 전반 끝나고 유니폼 교환...팬들 “부끄러운 일” /사진 뉴시스